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Online Class Experience in COVID-19 Situ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김 소 연

2021년 8월

석사학위논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Online Class Experience in COVID-19 Situ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김 소 연

2021년 8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Online Class Experience in COVID-19 Situation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김 소 연

2021년 6월

김 소 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재 홍 인

심사위원 고 전 인

심사위원 김 빈 훈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6월



# 목 차

국문 초록 .....	v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II. 이론적 배경 .....	4
1.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교육 .....	4
2.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직무 .....	5
3. 온라인 수업 .....	7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	10
III. 연구 방법 .....	12
1. 연구 참여자 .....	12
2. 자료 수집 .....	14
3. 자료 분석 .....	16
4. 연구자의 포지셔닝(Positioning) .....	17
IV. 연구 결과 .....	18
1. 온라인 수업의 맥락 .....	18
가.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	18
나.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른 학사 운영의 변화 .....	21
다. 학교별 운영에 따른 차이 .....	28
라. 교사의 역량에 따른 차이 .....	34
2. 온라인 수업의 경험 .....	36
가. 수업 준비 단계: ‘맨땅에 헤딩해도 될까?’ .....	36

나. 수업 상황: ‘빼끗하더라도 차근차근’ .....	40
다. 학생 생활 지도: ‘보이지 않는 학생, 희미해진 팀워크’ .....	46
라. 학부모와의 관계: ‘경기장 밖의 동료’ .....	50
3. 온라인 수업의 의미 .....	51
가. 수업혁신: ‘기존 수업 방식의 알을 깨기’ .....	51
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 ‘현실은 꿈보다 쓰다’ .....	53
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응: ‘과학 기술과 인간의 공생하기’ .....	54
<b>V. 논의 및 결론</b> .....	58
1. 논의 .....	58
2. 결론 .....	63
<b>참고문헌</b> .....	65
<b>참고자료</b> .....	69
<b>ABSTRACT</b> .....	71
<b>부 록</b> .....	73

## 표 목 차

<표 II-1> 교사의 직무 영역별 직무 내용 .....	6
<표 II-2> 온라인 수업 운영 교사의 역할 .....	9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12
<표 III-2> 면담 질문 .....	14
<표 III-3> 참고 수업 장면 .....	15
<표 IV-1> 교육정보화 정책의 흐름 .....	18
<표 IV-2> 2020년 1학기 학교 휴업 명령 및 온라인 개학 현황 .....	21
<표 IV-3>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격 수업 기준 .....	22
<표 IV-4>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및 밀집도 조정 방안 .....	23
<표 IV-5> 온라인 수업 유형별 운영 형태(예시) .....	24
<표 IV-6> 온라인 수업 플랫폼 특징 .....	25
<표 IV-7> 온라인 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	26
<표 IV-8> 제주특별교육자치도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 추진 실적 .....	26
<표 IV-9> A교(6학급 규모)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	28
<표 IV-10> B교(12학급 규모)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	30
<표 IV-11> C교(65학급 규모)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	32
<표 IV-12> 교사별 온라인 수업 관련 연수 이수 및 플랫폼 활용 .....	35

## 그림 목 차

[그림 III-1] Moustakas(1994)의 연구 절차	.....	16
-----------------------------------	-------	----

# 국 문 초 록

##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김 소 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어떠한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는지, 온라인 수업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구하여 보다 나은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업 장면을 관찰하였으며, 단위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등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3개의 주제, 11개의 하위 주제와 의미 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어떤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는가?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수업에는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코로나19 진행 상황, 학교와 교사의 결정 등의 맥락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의 방식이 시도되어 왔으나 학교마다 마련된 인프라와 기기 활용 수업 운영의 정도가 각각 상이했다. 또한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단위 학교의 온라인 혹은 대면 수업 방식 등 교육과정 운영이 달라졌다. 이와 더불어 단위 학교의 환경과 온라인 수업 방식 결정, 교사의 정보와 역량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운영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은 수업 준비 단계, 수업 상황, 학생 생활 지도,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 및 학습 기기가 부족하고 매뉴얼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데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 수업 상황에서는 점차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어가며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수월했지만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기 곤란했으며 학생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는 대면 수업에 비하여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하거나, 출석 및 과제 제출 문제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탐구 학습 등 기존 수업으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업도, 교사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교사와 학생의 기기 활용 미흡, 학생들의 소극적인 수업 태도 등에서 온라인 수업의 이상과 현실간의 차이를 느꼈다.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해 교사 대상 연수 마련, 수업 및 학습용 기기 지원, 플랫폼 개발, 긴급 돌봄 지원, 출석 인정 기준 개정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수업의 실제적인 운영에 관해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온라인수업, 원격수업, 초등학교 담임교사, 포스트휴머니즘, 코로나1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언젠가는 교사와 학생이 컴퓨터를 통해 만나는 날이 오겠지?' 라고 막연히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학생이 학급을 떠올렸을 때 교실과 칠판이 단번에 떠오르지 않는다. 2020년 4월 이후 어느 플랫폼 속 학급에서, 화면 속 선생님이 알려주는 학습 내용과 숙제에 따라 스스로 공부한 학생들은 학급, 그리고 수업을 생각하면 컴퓨터가 떠오를 것이다.

2020년 2월 말,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언택트(untact) 방식의 생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최초로 개학이 세 차례나 미뤄지고,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다(교육부, 2020b).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운영되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구축, 기기 확보, 교사의 정보화 능력 등 충분한 물적, 인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어려움이 많았다.

온라인 수업 시작 이후 1년 여 기간 동안 원활한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해 인터넷 망 구축, 정보화기기 보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현장 지원 등 교사의 정보화 능력 개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21a). 그 결과 온라인 수업이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전국 534만 명의 초·중·고 학생 중 98.9%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였고, 학교 현장의 교육용 콘텐츠는 온라인 개학 이후 열흘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동아일보, 2020. 4. 30.). 전면 휴교하거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업 참여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공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다고 평가되었다(오마이뉴스, 2020. 7. 2.)

물론 온라인 수업은 그만의 장점이 있다.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학생 개인의 편의와 진로를 고려하여 원하는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김재춘, 박소영, 2004),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되 본인의 수준에 알맞은 학습을 할 수 있다(김정량, 2004).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업 단계 별로 학습 콘텐츠 활용, 팀 프로젝트 및 문제 해결,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오재호, 2020), 온라인 수업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이준, 정순원, 2012).

하지만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드물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사의 디지털 기

기 활용 빈도는 -0.563으로 OECD 7개 국가 중 가장 낮다.(김혜숙, 신안나, 김한성, 2020). 온라인 수업이라고 불린 사이버 가정학습, 블렌디드 러닝, 거꾸로 교실 모두 대면 전제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도 일부 교사만 운영해왔고 이 또한 보조적 역할 또는 수업의 부분이었을 뿐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김혜진, 2020).

이렇듯 발전한 기술적 여건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학교를 비난하는 여론도 늘어났다. 지난 2020년 7~8월 교육부가 학부모 17만 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4.1%인 반면, 79.7%의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원격수업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장지훈, 2020). 또한 10월 교육부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학부모의 62.8%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사립학교의 수업 일수가 더 많고 원격 수업의 질이 좋다는 평이 나오면서 사립학교 선호도가 치솟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물론 응답 교사의 68%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인 기초학력 보장을 다소 놓친 것도 사실이다(김나현, 홍순빈, 정한결, 2021). 이뿐 아니라 접속 장애 등으로 인한 교육 기회 불균형,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 노출, 저작권 침해, 낮은 학습 효율성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오재호,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온라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교사들은 전면 온라인 수업이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수업 혁신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계보경 외 5인, 2020). 갑작스러운 초·중고 400만명 학생의 온라인 수업이 미래 공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는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이라는 교육의 변혁을 초래했으며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겼다.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김혜진, 2020).

온라인 수업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블렌디드 러닝, 거꾸로 교실, 사이버 가정학습 등 대면 전제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들과 초·중등 교과 전담 교사(박선호, 최희경, 2020; 서나래, 2020; 양동석 외 2인, 2020; 오지수, 2020; 이의재 외 2인, 2020; 최형미, 이동국, 2020;), 특수교사(이인지, 2020; 윤태성 외, 2020;), 초등교사 중 담임교사와 전담교사(김범규, 2021; 김혜진, 2020)의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온라인 수업 경험이 풍부한 담임교사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교과 전담 교사, 특수교사와 달리 교과수업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 안전 및 인성 지도를 겸하는 부담감 속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고학년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온라인 수업의 방향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0학년도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초등학교 중·고학년 담임교사 10명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개월에 걸쳐 면담과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 제주 소재의 한 초등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수업 협의록을 참고하고, 세 교실의 온라인 수업을 녹화하여 관찰하였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상황을 경험한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Moustakas의 현상학적 연구방법(Moustakas, 1994; Creswell, 2013)을 통해 분석하고 개인 담임교사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관해 복합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2020년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어느 지역 일부 교사들의 경험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음을 밝히며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맞게 관련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어떤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는가?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교육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의 디지털 문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다. 정보통신 및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일상적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인간의 대부분 활동이 IT 기계나 기술적 도구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부는 일찍이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 주관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 정보화 시설 구축을 시작하여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을 지원해왔다. 200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 기기 보급과 함께 스마트러닝(Smart-Learning)이 시작되었고, 이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교육 방식도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교육방법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EduTech, Education-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닝이 시공간 제한 없는 학습 환경을 가능케 했다면 에듀테크는 학습자의 맥락성까지 고려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남선우, 2020).

코로나19가 교육 혁신을 앞당기면서 에듀테크가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다. 에듀테크는 교육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기술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이은적, 2020). 이러한 신기술은 교육 현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나 제한점을 해결해주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에듀테크, 온라인 수업으로의 변화는 학교와 교사에게 아래와 같이 사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김진숙, 2020).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이다.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 상황을 대비해 정보통신매체 활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McKee-Waddell, 2015). 둘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전인성(全人性) 회복을 위한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사회적 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오재호, 2020). 셋째, 교사가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또는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료 제작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움의 영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종합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이은적, 2020).

환경의 변화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포스트휴머니즘의 등장을 가져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존의

휴머니즘적 관점을 넘어 미래의 기술 중심 사회의 조건에 맞게 인간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입장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존 인간의 개념 또한 흔들리게 되면서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박휴용, 2019). 포스트휴먼 시대로의 변화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타자와 구별되는 주체가 아니라,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의 융합이며 미래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대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박유신, 조미라, 2017).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융합’하여 ‘창조적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시대다. 그러므로 인간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 외에 다른 영역 간의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이 인간의 삶을 위한 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접한 지식을 해석 및 가공하여 재탄생시키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한 창조적 지식과 함께 타인과의 소통능력이 길러진다면 인간은 지식의 ‘융합’을 해내고 과학기술 발달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장혜진·신서영·박창언, 2019).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Cook, 2016; 박휴용, 2019). 첫째,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교사는 지휘자 대신 조연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학생들은 웹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발적이고 상호 협동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용 전문가에서 학습(사고) 전문가로 변화할 것이다. 교사는 교육 내용에 대한 배경과 의미에 대해 공평한 관점을 제공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생들이 비판적 인식을 키우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습 주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자극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능력 및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자 대신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교사는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교수보다는 안내와 평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학습 성과의 최종 판단자가 아닌 학습 코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2.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직무

‘직무(職務)’란 특정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뜻한다(국립국어원, 2014). 교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6항

에 의거하여 법률로 정해져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로 규정된 교사 직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자질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초·중등 각 급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담임교사 주도로 계획된 하루 일과를 보내므로 담임교사의 직무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허나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교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업무와 학교 전체의 운영을 위한 업무까지 주어진다. 이 가은(2015)은 우리나라 교사가 공통적으로 수행할 만한 직무 영역과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박영숙, 정광희, 1999; 박덕규 외, 2003; 김이경 외, 2005; 권혁운, 2010)분석 및 종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5개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표Ⅱ-1> 교사의 직무 영역별 직무 내용

구분	상세 업무 내용	
교과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재구성</li> <li>• 학습자료 준비 및 제작</li> <li>• 수업 내 문제 사태 대처</li> <li>• 평가 계획 및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연구</li> <li>• 교수학습 활동 전개</li> <li>• 부진 학생 지도</li> <li>• 평가 결과 활용</li> </ul>
학생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생활습관 지도</li> <li>• 급식 지도 및 건강 지도</li> <li>• 다문화 학생 지도</li> <li>• 학생 상담</li> <li>• 학교 폭력 사안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이해 및 파악</li> <li>• 교우 관계 파악</li> <li>• 특수 학생 지도</li> <li>• 안전사고 예방 지도</li> </ul>
학급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 교육과정 수립 및 보완</li> <li>• 학교 환경 구성 및 관리</li> <li>• 학생 자치 활동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 규범 및 분위기 형성</li> <li>• 담임 업무 수행</li> <li>• 학급 홈페이지 관리</li> </ul>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상담</li> <li>• 학교 밖 자원과의 관계</li> <li>• 관리자와의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불만 처리</li> <li>• 동료 교사와의 관계</li> <li>• 학교지원인력과의 관계</li> </ul>
교직소양 및 전문성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소양 함양</li> <li>•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li> <li>• 장학 활동 참여</li> <li>• 자체 연수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및 시간 관리</li> <li>• 직무 연수 참여</li> <li>• 교육 연구 활동</li> </ul>
행정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계획 및 추진</li> <li>• 업무포털 사용 및 공문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스 사용</li> </ul>

출처 : 오가은(2015 : 14)

교과지도 영역은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직무이다. 교사는 국가와 학교 수준의 상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급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학생들의 능력과 학습수준에 알맞은 지식과 기능을 지도해야 한다. 수업 중에는 수업 운영자, 학습 동기 유발자, 학습 촉진자로서 수업을 이끌어간다. 수업 후에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음 학습 활동과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돕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학생지도 영역은 정서와 인성 측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동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아동 개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생활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이병진, 1998). 교사는 학급 내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고 이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도록 돕는다.

학급경영 영역은 학급구성원인 학생들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계획, 조직, 조정, 통제하는 활동들을 일컫는다. 담임교사는 성공적인 학급 경영자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공정하게 래포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교실의 환경 관리자로서 학습 및 교실 분위기 등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범웅, 허숙, 2014).

대인관계 영역은 학생 외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등 대외관계와 관련이 있다. 교사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자녀의 교육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 협조하며(박덕규 외, 2003), 학부모 총회 및 공개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동료교사, 관리자, 학교지원인력, 지역사회, 교원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교직소양 및 전문성 신장 영역은 담임교사가 교육자이자 공직자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질과 품성을 함양(박영숙 외, 1999)할 수 있도록 자기 성장을 돕는 것이다. 담임교사는 보다 발전된 수업 운영, 생활 지도, 학급 경영과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교내외 다양한 연수에 참여한다.

행정업무 영역은 담임교사가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다. 교사는 학교 또는 학년 운영에 관한 협의회에 참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담임교사의 행정업무가 교사의 근무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낮춘다 하여(이대식, 1997)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는 경감되고 있는 추세이다.

### 3.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은 교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이다(노경희, 이준, 염철현, 장

시준, 정영석, 2011). 이는 원격수업이라고도 불리며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학습, 멀티미디어 교육, 이러닝, 인터넷 기반 교육, 사이버 교육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충현, 2009).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의 개념을 구별해서 정의한다. 원격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을 달리한 상황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격 수업에서는 인쇄 매체, 방송·통신 매체, 오디오·비디오, 인터넷 기술, 메신저, SNS(Social Network Service), 학습 플랫폼 교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김철주, 1997). 온라인 수업도 시공간을 달리한다는 점은 같으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상황의 초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들은 방송을 통해 수업에 참여했지만 이 연구 대상인 3~6학년 담임교사들은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한정해 서술하고자 한다.

온라인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학습자는 온라인 수업에서 직접 경험 대신에 인터넷의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김정렬, 2001).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학습에의 자신감과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 특히나 디지털 콘텐츠 활용 학습, 팀 프로젝트 학습, 보충 및 심화 학습이 수업 전·중·후 단계에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습자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되 개인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하여 학습 계획을 세운 뒤 이에 맞게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Lee, 2000).

둘째, 시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학습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송상호, 신중호, 2002). 대면 수업의 경우 정해진 시정표가 있고, 2019년 초등학교 1인에게 주어지는 학교 건물 면적은 16㎡에 불과했다(오재호, 2020). 반면에 온라인 수업은 물리적 여건이 유연하여 교육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시설과 인력이 미비된 지역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박혜정, 최명숙, 2008).

셋째,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및 자율적 학습이 가능하다(송상호, 신중호, 2002).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발적인 학습 기회를 주고 자기 주도적 학습 시스템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및 자율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 개인이 개별 역량에 따라 학습 속도와 난이도를 조절하며 학습하여 학습 성공의 가능성을 커지게 한다(Lee, 2000).

넷째, 다양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학습자 중심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홍성룡, 2003). 학생들은 화상강의와 같은 실시간 또는 전자 게시판을 통해 비실시간, 일대일, 일대

다, 다대일, 다대다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상호작용을 경험하며(김정렬, 2001) 학습자들 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홍성룡, 2003). 정의적 측면으로는 학습자가 대면 상황의 이목이 집중되는 발표 대신 온라인 상에서 채팅, 쪽지,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학습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다(임현정, 2006).

물론 2020학년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실시로 인해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우선, 정보 접근 가능성과 정보 활용 수준 측면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견되었다. 정보격차로 인해 계층별로 정보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데,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수준에 비해 69.9%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개인 간 격차 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도 각종 기기와 인프라, 와이파이 도입 등에 차이가 있어 학생 간 공정한 수업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없었다(오재호, 2020). 이밖에도 온라인 수업은 교사 및 학생의 사생활 노출, 저작권 침해, 학생들의 기기 과다 노출로 인한 건강 악영향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따랐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했다.

#### <표 II-2> 온라인 수업 운영 교사의 역할

- 
- 교과별 목표 및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원격수업 구성·운영
  - 원활한 원격수업 구성·운영을 위하여 동학년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 학년 원격수업 구성·운영 협의를 통한 질 관리 도모
    - 활용 학습 콘텐츠 정보 공유 및 공동 제작 활용, 원격수업 운영 기능·기술적 협력 등
  - 모든 학생 대상 원격수업 이수 독려
  - 개별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 결손 방지
    - 학생들의 참여도·적극성·성취기준 등을 관찰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학생별 적정 피드백 부여
  -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과 점검 강화
  - 정기적 학생 학습 환경 상담 및 정서적 관리를 통한 지도, 상담
  - 원격교육 미참여학생 상담 진행 및 지도 관리 수행
  - 온라인 개학 기간 중 건강 이상 학생 발견, 보건교사에게 통보, 관리
- 

출처 : C초등학교(2020 : 5)

####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은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화 학습,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고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수립 및 추진된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의 5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수업’이 제안된 이후로 온라인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과 시범 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0년 온라인 개학 이후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연구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이전 온라인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사이버가정학습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도현 외 3인(2007)은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사례 교사로부터 실천 경험과 운영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가정학습의 핵심 성공 요소는 교사의 열정,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오프라인 활동과의 연계, 콘텐츠의 질, 학교 또는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지원 등이다. 반면에 이준, 이충현(2005)은 초·중등 교사의 사이버가정학습 인식에 대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가정학습이 성공적으로 시행 및 정착되기 위해 학생 사전 교육 강화, 수준별 강의 콘텐츠 개발,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 마련, 학습 동기 유발 전략 마련, 교사 간 정보 교류 및 교사 연수 기회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서안나(2014)는 초등교사가 인지하는 스마트교육의 문제점은 환경 구축의 미비와 담당 기관의 부재임을 밝혔다. 문제 개선방안으로서 교사 대상의 연수, 예산 확보, 스마트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손찬희, 강성국, 하성준의 스마트교육 차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연구(2014)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공감하나 학생의 만족도는 낮음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능 제공이 필수적이고 온라인 수업 전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온라인 수업의 운영 사례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온라인 수업의 운영이 앞으로도 또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기에 더욱 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온라인 수업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각 과목별 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학생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과 전담 교사 및 특수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 전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박선호, 최희경(2020)은 초등학교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했다. 교사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상시국을 대비한 매뉴얼 준비, 실질적 교사 연수, 교사 탈진을 방지하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오지수(2020)는 다섯 명의 초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온라인 수업에서 초등 영어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영어과 특성상 상호작용 투입의 곤란함,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문제,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과 번아웃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사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각각 제시하였다.

서나래(2020)는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태도, 온라인 수업방식의 결정 및 운영,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 운영의 전략과 발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수업을 운영하며 미비된 여건으로 인한 수업 방식의 제한을 느끼면서도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양동석 외 2인(2020)은 초등학교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의재 외 2인(2020)은 고등학교 경력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코로나 19에 대처하여 온라인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체육교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육 수업의 개선 및 극복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인지(2020)는 초등학교 특수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특수 학생 대상 원격수업의 특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수교사가 경험한 원격수업의 긍정적인 면과 어려운 면을 파악하여 특수 학생 대상의 원격 수업 지원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윤희(2020)는 온라인 수업에서 개별학습이 가능하나 사교육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원격수업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간 소통이 필수적이며 통합학급의 원격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초등학교 부장교사,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혜진(2020)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라 초등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 겪는 환경적·심리적·실천적·학생 및 학부모 경험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에슬 외 2인(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원들이 경험하는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지원책을 시사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 지역 초등학교의 중·고학년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초등교육의 특성 상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수업활동이 많고 담임교사가 전 교과 지도와 더불어 생활 및 인성 지도까지 도맡아 하는 특성이 있어 온라인 수업에서 큰 변화를 마주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 학년 중에서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은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했으므로 중·고학년 담임교사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방법은 유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e)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의도적 표집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전체 집단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대표적인 대상을 임의로 표집하는 방법이다(하우동설, 2011).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자신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만큼 연구자와의 rapport가 형성된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담임교사의 근무 학교 규모, 지역, 성별, 경력, 담당 학년 등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 운영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 안에 최대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조건의 초등학교 중·고학년 담임교사 10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이름(가명)	성별	학교 규모	지역	나이	경력	2020학년도 담당 학년
교사 A	여	6학급 A-1교 학급당 10명 내외	읍면지역	40세	15년	6학년
교사 B	여	6학급 A-2교 학급당 18명 내외	읍면지역	30세	6년	6학년
교사 C	남			28세	2년	5학년
교사 D	여	11학급 B-1교 학급당 21명 내외	동지역	32세	6년	4학년
교사 E	여	12학급 B-2교 학급당 19명 내외	동지역	29세	6년	6학년
교사 F	남	17학급 B-3교 학급당 24명 내외	동지역	30세	4년	4학년

교사 G	여	27학급 B-4교 학급당 24명 내외	동지역	56세	12년	3학년
교사 H	남			34세	7년	4학년
교사 I	여	38학급 C-1교 학급당 27명 내외	동지역	30세	6년	영어 전담
교사 J	여	65학급 C-2교 학급당 29명 내외	동지역	31세	6년	6학년

교사 A는 읍면지역 6학급 혁신 학교에 근무하는 40대 여교사이다. 혁신학교 특성상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소규모 학교라 4월 개학 이후 6월 8일까지, 12월 21일부터 학년 말까지 약 2개월 간 온라인 수업이 운영되었다.

교사 B와 C 또한 읍면지역 6학급 혁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므로 교사 A가 근무하는 A-1교와 학교 조건이 유사하다. 실시간 화상 수업 플랫폼으로 줌(Zoom)을 활용한 대부분의 학교와는 달리 A-2교는 리모트미팅(Remote meeting)을 활용했다. 교사 B는 이전 학년도에 맡았던 학생들을 연임하여 학년 초 학생들과 관계 형성 및 학급 경영관 수립에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교사 C는 2년 차 신규교사이고 저학년 담임을 맡다가 고학년 담임이 되어 학년 초 학급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 D는 동지역 11학급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이다. 이 연구 참여자는 1학기에 타지역에 파견되어 연수를 이수하였고, 2학기 시작과 함께 4학년 담임교사로 복직하였다. B-1교는 한 학년에 두 학급이 있어 학년 내 협의 하에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나갔으며, 원도심 학교라 일반 학교에 비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유리했다.

교사 E도 교사 D와 같이 동지역 원도심 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이다. B-2교도 B-1교와 마찬가지로 한 학년에 두 학급이 있어 학년 내 협의를 거치며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나갔다. 교사 E도 이전 학년도 학생을 연임하였으나 진급하면서 학생들이 두 학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학생만 연임한 경우이다. 또한 교사 E는 2020년 전면 온라인 개학 이전에도 사이버 학급을 개설하여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학생들과 소통해왔다.

교사 F는 동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남교사이다. 한 학년에 세 학급이 있어 학년 협의를 거쳐 수업 방식을 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교사 F는 새로운 정보화기기 활용을 시도해 보는 데 관심이 많고 기기를 다루는 데에 능숙하나 코로나 19 상황 이전에 온라인 수업 경험은 없다.

교사 G는 동지역 27학급 규모의 학교에 근무하는 50대 여교사이다. 교사 G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않아 첫 시작에 어려움이 더 컸다. 특히나 3학년의 경우 1~2학년과 발달 단계가 비슷하고 긴급돌봄을 운영하여 수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했다.

교사 H는 교사 G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30대 남교사이다. 교사 H는 소속 학교의 정보부장으로서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연수를 담당하였다. 교사 H는 스마트교육에 능통하고 기존에도 대면 수업의 보완재로서 사이버 학급을 운영해왔다.

교사 I는 동지역 38학급 규모의 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이다. 교사 I의 경우 2020학년도에는 영어 전담 교사였으나 2021학년도에는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과목 전담 또는 학급 담임으로서의 온라인 수업을 모두 경험했다.

교사 J는 동지역 65학급 규모의 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이다. C-2교는 한 학년에 10개 학급 이상이라 담임교사 한 명 당 한 과목씩 맡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로 공유하며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다. 학부모 및 교직원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갑작스레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다.

## 2. 자료 수집

연구자는 2020년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의 상세한 온라인 수업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심층 면담, 관찰, 문헌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전 전화 통화 또는 면담을 통해 중·고학년 담임 여부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수합했다.

심층 면담의 경우 대면 또는 전화 상으로 미리 준비된 질문을 한 뒤 개방형 질문을 이어가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질문지에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후 서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하며 초등학교 중·고학년 담임교사들의 구체적인 온라인 수업 경험을 추출하였다. 사전 준비된 질문은 아래와 같다.

### <표 III-2> 면담 질문

맥락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요?
경험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 장치, 자료 등 인프라가 잘 준비되어 있었나요?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번갈아가면서 운영된 시기에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수업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셨나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의미	온라인 수업을 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수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설명해주세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설명해주세요.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온라인 수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자는 교사 3명의 아침 조회와 수업 사례를 관찰하였다. 연구 참여자 10명의 교사 중 연구자 본인인 교사 B의 6학년 대상 수업, 교사 I의 3학년 대상 수업, 교사 J의 5학년 대상 수업이다. 각 교사의 수업을 녹화한 영상을 보며 교사의 수업 및 학급 운영에 대해 면담했다.

<표 III-3> 참고 수업 장면

교사	일시	대상	과목
교사 B (연구자)	2020학년도 09:00-11:30	6학년 13명	영어 외 전 과목
교사 I	2021. 4. 14. 08:50-11:00	3학년 30명	국어
교사 J	2021. 4. 14. ~ 4. 16. 09:00-11:30	5학년 28명	국어, 수학, 사회, 음악, 창체

문헌 연구의 경우 첫째, 제주 소재의 초등학교인 6학년 규모의 A-2교 전문적학습공동체 협의록을 참고하였다. A-2교는 2017년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매주 수요일 3시 또는 전체회의 시간에 전 교원이 모여 교육과 학급운영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거나 교원 연수에 참여하였다. 2020년에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의 전환을 맞이하여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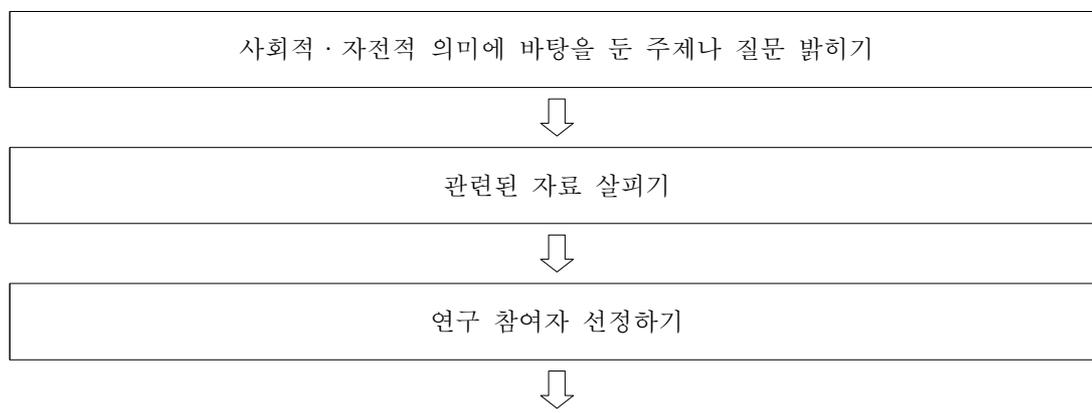
적학습공동체에서는 각 교사가 수업 및 생활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과 좋은 자료 및 수업 사례 공유가 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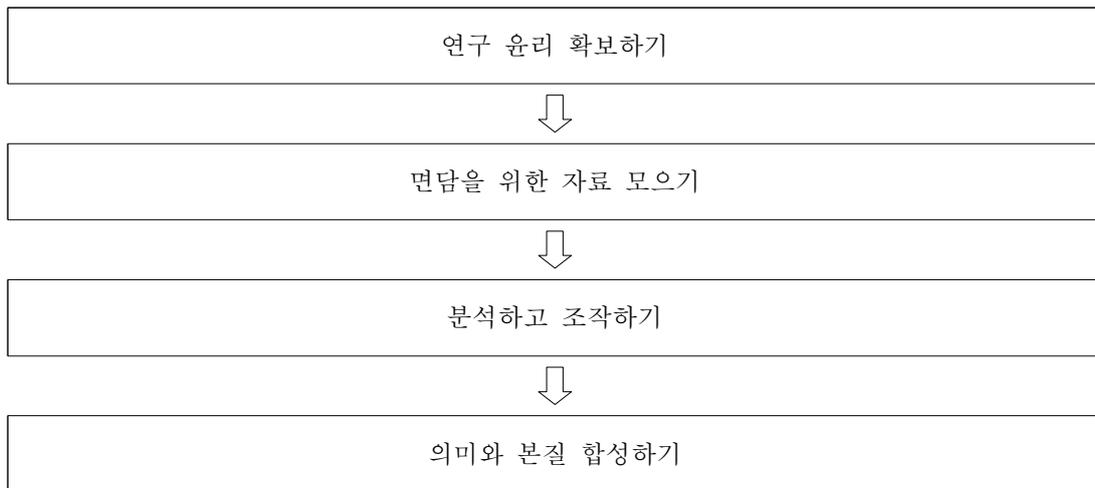
둘째, 일부 학교의 2020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참고했다. 학교의 규모 별로 운영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6학급 규모의 A-2교, 12학급 규모의 B-2교, 65학급 규모의 C-2교의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2020년 이래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초등학교 교육현장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분석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여러 개인들이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을 체험(lived experience)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을 기술한다(Creswell, 2013). 현상학의 기본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보편적 본질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자는 개인들이 공통의 현상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경험을 복합적으로 기술한다((Moustakas, 1994; Creswell, 2013).

Moustakas(1994)의 현상학에서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중지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을 중요시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으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그들이 경험한 것과, 그들의 조건, 상황 또는 맥락 등을 분석하여 경험의 전반적인 본질을 전달한다. Moustakas의 현상학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Moustakas(1994)의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연구자는 담임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현상학적 연구법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자료들을 탐색하고, 연구 주제에 알맞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윤리 준수 하에 여러 담임교사들의 수업 경험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 4. 연구자의 포지셔닝(Positioning)

이 연구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연구 참여자 B이다. 연구자의 소속 학교 담임 교사 및 평소 친분이 있는 담임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선입견은 최대한 배제하였으나 교사로서 연구 결과 해석에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앞으로 수업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활용할 것이다.

## IV. 연구 결과

초등학교 중·고학년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와 문헌, 수업 녹화 영상을 분석하여 3개 주제와 11개 하위주제와 의미 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 운영에 영향을 준 온라인 수업의 맥락에 대해 기술하였다. 두 번째로는 수업 단계에서 교사가 수업 준비, 수업, 생활 지도,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 시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이 교사의 교사관 및 교육관과 전반적인 초등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 1. 온라인 수업의 맥락

#### 가.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5년 마다 새로운 추진 목표, 방향, 과제 등을 제시해왔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는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ICT 활용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교원의 ICT 활용 능력 강화, 교육 정보 개발 보급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현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고 있다.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에 관한 연구(강명희 외, 2015; 교육부, 2014; 교육부, 2019; 교육부 외, 2020;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박은혜 외, 2021; 송해덕 외, 2015)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IV-1> 교육정보화 정책의 흐름

계획 및 시기	목표	성과	비고
1차 교육정보화추진 시행계획 (1996~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정보화 기본 구축</li> <li>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li> <li>교육행정 정보화</li> <li>학술 연구 정보 이용 환경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 교육정보화 실시 기반 구축</li> <li>교육정보 자료를 활용한 활동과 교육행정 정보 유통</li> </ul>	교육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 마련

교육정보화 2단계 종합발전방안 (2001~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 능력 배양</li> <li>•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li> <li>• 함께하는 정보문화 창달</li> <li>• 종합적 성과 지원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구축 조기 완료에 따라 중점이 ICT 활용으로 이동</li> <li>• 이러닝의 보편화</li> <li>• 나이스(NEIS) 구축</li> <li>• 학술정보 유통체제 구축</li> </ul>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계획 수립하여 교육정보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
교육정보화 3단계 종합발전방안 (2006~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활용 교육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민의 지식 창출 및 학습역량 강화</li> <li>• 학습환경의 유비쿼터스화 기반 마련</li> <li>• 교육정보화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li> <li>•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안전성 강화</li> </ul>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기본계획 (2010~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디지털 인재 양성</li> <li>• 선진 R &amp; D 역량 강화</li> <li>•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li> <li>• 교육과학기술 정보 인프라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교육 도입과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 등 현장 적용</li> <li>• 교육의 전 영역에 정보화 확장</li> </ul>	과학기술 분야가 통합되어 교육과 과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추구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014~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역량 교육 선도</li> <li>•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학습 지원</li> <li>•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고른 기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를 교육 전반(유·초·중등, 고등, 평생, 직업·복지)으로 확장</li> <li>•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 마련</li> <li>• 인프라 고도화 추진</li> </ul>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2019~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li> <li>• 지속 가능한 교육정보화 혁신</li> <li>• ICT를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li> <li>• 공유형 교육정보 디지털 인프라 구축</li> </ul>		

1995년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고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과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 에 따라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 정보화 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구체적인 적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도 1차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인 ‘교육정보화촉진 시행 계획(1996-2000)’ 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교육부가 교육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교육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서는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 교육행정 정보화, 학술 연구 정보 이용 환경 구축이라는 4개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 추진 체계,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중등은 교육정보화를 실시할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 등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교육정보 정보를 활용한 활동과 교육행정 정보 유통이 가능해졌다(송해덕, 김규식, 2015).

2001년부터 추진된 ‘교육정보화 2단계 종합발전방안(2001-2005)’에서는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강명희 외, 2015). 2단계에서는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 능력 배양,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 함께하는 정보문화 창달, 종합적 성과 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조기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ICT 활용으로 중점 이동, 이러닝의 보편화, 나이스(NEIS) 구축,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어 교육정보화가 확산 및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IT기술이 발달하고 교육정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에 발표된 ‘교육정보화 3단계 종합발전방안(2006-2010)’은 ICT활용교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이 정책은 전 국민의 지식 창출 및 학습역량 강화, 학습 환경의 유비쿼터스화 기반 마련, 교육정보화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안전성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이 제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맞물려 스마트러닝(Smart-Learning),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의 교육 방식도 등장했다(김혜진, 2020).

4차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가 통합되어 교육과 과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를 추구하였다(강명희 외, 2015). 이에 따라 창의적 디지털 인재 양성, 선진 R & D 역량 강화,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교육과학기술 정보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스마트교육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 등 현장 적용을 이끌어냈으며 정보화를 교육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강명희 외, 2015).

5차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인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은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역량 교육 선도,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학습 지원,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4). 이를 통해 정보화를 교육 전반(유·초·중등, 고등, 평생, 직업·복지)으로 확장하고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 마련하였으며 인프라 고

도화가 추진되었다(교육부, 2019).

마지막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9-2023)’은 미래형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교육정보화 혁신, ICT를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실현, 공유형 교육정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4세대 나이스 구축 등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며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교육부, 2020c).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위 계획과 더불어 원격교육 환경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육 사이트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KT, SKT, LGU+)와 협력하여 EBS 방송 시청을 자유롭게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4. 1.).

#### 나.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른 학사 운영의 변화

2020년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4차에 걸친 학교 휴업명령 끝에 4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학년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4~6학년은 4월 16일, 1~3학년은 4월 20일에 각각 비대면 온라인 개학하였다.

<표 IV-2> 2020년 1학기 학교 휴업 명령 및 온라인 개학 현황

		1차 3.2.~3.6. (5일)	2차 3.9.~3.30. (10일)	3차 3.23.~4.3. (10일)	4차 4.6.~4.8. (3일)	4.9.~10.	4.16.~17.	4.20.~
고	3	휴업				온라인 개학 (4.9.~)		
	1, 2	휴업				온라인 개학 (4.16.~)		
중	3	휴업				온라인 개학 (4.9.~)		
	1, 2	휴업				온라인 개학 (4.16.~)		
초	4-6	휴업				온라인 개학 (4.16.~)		
	1-3	휴업						온라인 개학 (4.20.~)

출처 : 교육부(2020b : 2)

2020학년도 내내 전국 모든 학교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학교 규모와 지역 상황 등 아래 기준에 따라 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이 운영되었다. 소규모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농산어촌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지역·학교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도 밀집도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었다(교육부, 2020d).

<표 IV-3>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격 수업 기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유치원, 초·중·고,	· 밀집도 2/3 원칙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는 2/3) ·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소규모 학교(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농산어촌 및 특수학교(급)은 2.5단계까지 지역·학교 자율 결정  
 ※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밀집도 기준 제외

출처 : 교육부(2021f : 25)

위 기준에 따르면 1단계인 경우 학교 내 2/3 밀집도를 권장하지만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 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2단계, 2.5단계로 갈수록 권장 밀집도는 낮아졌다.

제주 지역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및 밀집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로써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잦았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여도 지역 내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전파가 거세지면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갑작스레 전환되었다.

<표 IV-4>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수업 및 밀집도 조정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교육부 기준 교육청 기준 (전체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원칙</li> <li>• 조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고2/3) 원칙</li> <li>• 2/3 이내 운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준수</li> </ul>	원격 수업
초 900명 이상 중·고 7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원칙</li> <li>• 전체 등교 조정 가능(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고 2/3) 원칙</li> <li>• 2/3 조정 가능(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준수</li> </ul>	온라인 수업
초 600~900명 미만 중고 500~70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원칙</li> <li>• 전체 등교 조정 가능(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고 2/3) 원칙</li> <li>• 2/3 조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준수</li> </ul>	
초 400명 초과 ~600명 미만 중·고 400명 초과 ~50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 원칙</li> <li>• 전체 등교 조정 가능(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원칙</li> <li>• 2/3 조정 가능</li> </ul>	
유 60명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원칙</li> <li>• 2/3 조정 가능</li> </ul>	
초중고 400명 이하* 유 60명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등교</li> </ul>	

\* 전체 학생 수는 400명 이하이나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초과일 경우 '400명 초과~500명 미만 학교 기준' 적용

※유치원, 초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밀집도 조치 적용 제외)

-초등학교: 2단계까지는 등교 대상에 1,2학년 학생 수를 포함하지 않음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 경우에 밀집도 기준 예외(~3단계)

※코로나19 전국 또는 제주지역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별 적용 방안 변경 가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 1)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과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b).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외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방식을 조합하여 온라인 수업이 운영되었다. 다만 학생의 수업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권장되었다.

<표 IV-5> 온라인 수업 유형별 운영 형태(예시)

구 분	운영 형태	비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짐</li> <li>• 학교 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하여 운영</li> </ul>	(화상수업도구에) 공공 LMS(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구글 미트,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li> <li>•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li> <li>•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li> </ul>	(예)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과제 수행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여 운영</li> <li>•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li> </ul>	(예) 과제 제시 →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 학습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상호작용 바탕의 수업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b : 3)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했으나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는 수업이 제공되어야 했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학생의 참여와 수행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자 상담 및 피드백을 제공하며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였다. 학생이 불가피하게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을 제공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b).

운영 형태는 학교 및 학급의 실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의 3~6학년 학급에서는 온라인 학급을 만들어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업 컨텐

츠를 탑재하고, SNS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해 나갔다. 각 교육용 플랫폼도 원만한 수업 진행을 위해 그 기능을 점점 보완해 나갔다.

<표 IV-6> 온라인 수업 플랫폼 특징

플랫폼	주요 특징	운영사
e학습터	회원 가입, 학급 및 학생 관리, 콘텐츠 무료 이용, 실시간 그룹회의 및 채팅, 화면 공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온라인 클래스	실시간 화상회의 및 채팅, 다양한 콘텐츠 활용, 학급 및 학생 관리	한국교육방송공사
구글 클래스룸	구글 계정 이용, 구글 드라이브 연계	구글
네이버 밴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이버
클래스팅 (Classting)	Zoom 연계 화상회의, 교육용 SNS	(주)클래스팅
줌 (Zoom)	실시간 그룹회의 및 채팅, 화면 공유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행아웃 (Hangouts)	실시간 화상회의 및 채팅, 화면 공유	구글
리모트미팅 (Remotemeeting)	실시간 화상회의 및 채팅, 화면 공유	(주)리모트미팅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도 교사들은 e학습터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제주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중 29.2%가 e학습터를 활용했다(김미정, 2021). 교사는 e학습터에 학급을 개설하고 학부모 동의 하에 학생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 ‘강좌관리’ 메뉴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별 콘텐츠를 탑재했다. 교사들은 e학습터 또는 다른 곳에서 콘텐츠를 수집 및 편집하거나, 직접 만든 콘텐츠를 활용했다. e학습터 등 플랫폼도 발전을 거듭해 2021년에는 e학습터에 화상수업, 설문조사, 퀴즈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교사는 e학습터로 학급관리와 화상수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뉴시스, 2021. 5. 6.).

온라인 수업에서 출결 관리는 다음과 같이 원격 수업 유형별 확인 방법을 활용하되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온라인 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 IV-7> 온라인 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 확인)		
	교사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유선	증빙 자료
실시간 쌍방향	○			○			○	○	○
콘텐츠 활용		○	○	○	○	○	○	○	○
과제 수행				○		○	○	○	○
확인 기간	당일	당일 또는 1주일(7일)내							

출처 : 교육부(2020d : 4)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참석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에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의 경우에는 학급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여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확인해 출석을 인정했고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LMS 접속 기록,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 및 인정했다. 하지만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출석 및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하고, 출석 확인 기간을 1주일 내로 설정하여 가능했다. 기타 유형의 수업은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증 기준, 출석 인정 증빙 자료, 제출 기한에 따라 출석이 확인되었다(교육부, 2020d).

등교수업-원격수업 병행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원격수업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원격수업지원단 구성 및 운영, 인프라 구축, 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원활한 온라인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이 원만하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점차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활발해질 수 있었다.

<표 IV-8> 제주특별교육자치도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 추진 실적

실적	내용
원격수업지원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평가 지원반, 활용지원반, 인프라지원반으로 세분화 운영</li> </ul>
수업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격수업 시범 학교 운영: 4교(초2, 중1, 고1)</li> <li>원격수업지원단 구성 운영 및 원격수업지원위원회 구성</li> <li>원격수업 관련 운영 사례집 등 발간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수업나눔 축제’ 를 통해 원격수업 우수 사례 공유</li> <li>• 코로나19 대응 평가계획 탄력적 조정</li> </ul>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원격수업(강의)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인터넷회선 증속</li> <li>- 원격수업을 위한 인터넷 보안 환경 최적화</li> <li>- 학생 4명당 1대 수준 학생용 스마트단말 보급</li> <li>- 교원용 노트북컴퓨터 보급</li> <li>- 학교 무선 인터넷망 구축</li> </ul> </li> <li>• 학생 가정 내 원격수업(이수) 환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스마트단말(태블릿, 노트북) 대여</li> <li>- 학생 가정 내 인터넷회선, 오피스프로그램 지원</li> </ul> </li> </ul>
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대상 연수: 콘텐츠 제작 및 역량 강화, 플랫폼 사용 및 활용, 저작권 관련, 콘텐츠 관련 등</li> <li>• 원격수업 플랫폼(셀비온,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K-에듀통합플랫폼) 지원</li> </ul>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a : 2)

2020학년도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학사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학교 전체 학생 수에 따라 학사 운영 방식이 달라졌으며,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구성원 중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발생 여부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불시에 전환되기도 하므로 그 상황마다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패드 등 정보화기기는 물론 교과서, 학습 준비물까지 챙겨서 가정과 학교를 오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전면 원격하려니까 물건이랑 책이랑 챙겨서 보내려니까 피난살이같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고... (교사 G, 2020. 12. 28. 면담)

코로나19의 진행과 학교 규모에 따라 수업 운영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도 했다. 일부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하여 전면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소규모 학교는 전면 대면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A-2교는 소규모 학교라 수업 일수의 대부분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새 학기 시작하면서 타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이 많고 전체 전학생이 전교생의 15% 정도임. 100명 이상이면 원격 수업을 해야 하므로 하루 이틀 정도의 온라인 수업 계획은 확보해야 함. (전문적학습공동체 협의록, 2020. 6. 17. A-2교)

이렇듯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어 교사들은 상시 학년 교육과정과 진도를 고려하며 대면 수업 준비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야 했다. 대면 수업인 경우와 온라인 수업인 경우 수업 활동과 준비물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목마다 이를 고려하며 대비했다. 난이도나 활동 유형 등의 문제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원 학습 순서 자체가 조정되기도 했다.

#### 다. 학교별 운영에 따른 차이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이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주어졌다. 학교 자율화란,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구성원인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으로 조직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고종극, 2010).

원격 수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의 결정 또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기에 이 방식의 선택은 학교 조직의 몫이었다. 그리하여 각 학교는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플랫폼과 운영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일부 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법률과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을 포함하여 시정표, 활용 플랫폼, 출석 인정 방법, 학생 관리 방법 등이 기재되어있다. 또한 학교마다 구비된 정보화기기 수량과 함께 학생 지원 방안, 지원 학생 선발 방법 등도 함께 계획되었다.

각 학교마다 계획 내용도 다르지만 얼마나 자세히 문서화 했느냐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인 A교의 경우 각 학년 당 1개 학급으로 구성되기에 전 담임 교사의 협의 하에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했다.

<표 IV-9> A교(6학급 규모)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1~2학년	3~6학년
조회 및 종례 형태	클래스팅 학급방 댓글확인	화상프로그램 활용 쌍방향 수업
수업 형태	▶ 콘텐츠활용 중심 수업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혹은 병행 수업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쌍방향 수업 혹은 병행 수업
조회 준비	09:10~09:30(출석보조장부, 접속상태 등 제반사항 점검)	

조회, 종례 활용 프로그램	클래스팅	<a href="https://www.remotemeeting.com/">https://www.remotemeeting.com/</a> (리모트미팅 프로그램-크롬 기반)
주요 학습 프로그램	EBS	각종 LMS** 프로그램 활용(학년별 자율)
조회 시간	09:30~09:40(수업일)	
조회 시 확인 사항	▶ 학생, 건강 상태, 대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화상으로 확인하기 힘들 때는 댓글을 통하여 참여 상태를 확인 ▶ 출석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전화를 통하여 반드시 학생 상태를 확인 후 출결 처리	
출석 확인	▶ <b>조회 및 종례시간에</b> 실시간 교사 확인(당일) ▶ 출석인정노트에 준하는 학년별 과제제시 및 댓글로 출석인정	▶ <b>조회 및 종례시간에</b> 실시간 교사 확인(당일) ▶ 출석인정노트 작성 후 담임에게 전송 ▶ 담임확인 후 이 두 가지 충족 시 출석 인정 ▶ 각 학년별 SNS, 유선전화, 증빙자료 탑재 등의 방법으로 대체 확인 가능
출석 인정기간	▶ 각 학년별 SNS, 유선전화, 증빙자료 탑재 등의 방법으로 대체 확인 가능 ▶ 1, 2학년 학생의 출결은 학부모(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학급방 댓글,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인 가능함. ▶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b>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b> ▶ 과제 수행 결과물로 출석인정노트를 대신할 수 있다. (평가활용)	
학생 관리	▶ (미 참여 학생)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b>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b> ▶ (등교 중지 대상자*)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출처 : A초등학교(2020 : 7)

A교의 경우는 SW교육 선도학교라 구비된 노트북, 태블릿PC 등 정보화기기가 넉넉하다. 온라인 개학 당시 구비된 노트북 수량이 3~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대여 가능한 수량이었으므로 시작부터 실시간 조회와 종례가 가능했다. 또한 당시 주로 사용되는 화상회의 플랫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대신해 학교 예산으로 유료 플랫폼인 리모트미팅(remotemeeting) 사용료를 결제하여 이 플랫폼을 활용했다. 조회 시간에는 출결 여부를 확인하고 종례 시간에는 학습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당일 수업에 관해 안내하였다.

B교의 경우는 동지역 중간 규모의 학교이다. 이 학교는 12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온라인 수업 운영에 관해서는 동학년 소속 담임교사 간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 B교 또한 학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원도심 학교라 예산 여유가 있어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를 대여해 줄 수 있었다. 덕분에 희망 학년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표 IV-10> B교(12학급 규모)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학년	원격 수업 유형	수업 방법			
	원격 수업 운영 계획	1-2	ebs방송 채널 시청	ebs방송 시청 및 교과서 활동		
3		콘텐츠 활용 중심	강의 + 활동형(e학습터에서 차시에 해당하는 영상 시청 후 활동물 제시)			
		과제 수행 중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과제로 제시 후 교사 확인 및 피드백하기			
4		콘텐츠 활용 중심	강의 + 활동형(e학습터, EBS, 유튜브 등 차시와 관련된 영상 시청 후 활동물 제시)			
		과제 수행 중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5		콘텐츠 활용 중심	▶e학습터 영상 및 다양한 콘텐츠 엄선하여 시청하도록 안내 후 과제 제시 ▶과제물 온라인 피드백			
6		콘텐츠 활용 중심	클래스팅, e학습터에 자료(EBS 강좌, e학습터 영상, 외부 콘텐츠, 교사 제작 콘텐츠)와 후속 활동물 제시			
		과제 수행 중심	클래스팅, SNS 학급방 등을 활용하여 과제 제시,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탑재, 피드백			
		실시간 쌍방향	SNS 학급방, 화상회의 플랫폼, 클래스팅 등을 활용하여 출결 확인, 학습 및 생활지도, 학급 소통			
일일 출결 확인 기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전 8시 40분 학급 온라인 학습방(클래스팅/하이클래스)에 학습준비 게시글 작성.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출결 확인.</li> <li>▶당일 활동내용은 다음날 담임교사가 확인하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li> <li>▶댓글 외 출결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학습터 로그인 기록</li> <li>-담임교사에게 문자 및 전화연락</li> </ul> </li> <li>※ 학생 혼자서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당일에 한하여 학부모님이 접속 가능할 때에 학생들의 학습내용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여 다음날</li> </ul>	사후 출결 확인 방안	1	▶ 교과서 방송분 활동내용
					2	▶ 교과서 방송분 활동내용 ▶ 배부된 학습지

	출결 확인하도록 함.		
3-4	▶오전 9시부터 학습준비 및 접속하도록 사전지도	3	▶출석인정 노트 ▶독후활동 노트 ▶교과서 풀이
	▶오전 11시: 1차확인, 미접속자 ‘문자’ 연락 ▶오후 4시: 2차확인, 미접속자 ‘전화’ 연락	4	▶출석인정 노트 ▶교과서 풀이 ▶활동지
5	▶ 오전9시: 실시간 소통 아침조회 또는 학급 온라인학습방(클래스팅) 댓글로 출결 확인 ▶ 오후1시: 미접속자 확인 후 전화 연락 ※ 학생들의 접속 상태 및 어플 적응도를 고려하여 온라인 댓글 및 로그인 기록으로 출결 확인할 수 있음.	5	▶ 학습노트 (배움공책) 기록 내용 ▶ 교과서 풀이
6	▶오전9시: 출결확인. 미접속자 ‘학생’에게 연락 ▶오후1시: 미접속자 출결확인. 미접속자 ‘학부모’에게 연락	6	▶ 교과서 ▶ 배움공책 ▶ 독서노트 ▶ 학습과제물 인증 사진 파일 등

출처 : B초등학교(2020 : 4)

온라인 개학 당시 B교는 위와 같이 학년 별로 수업 유형과 출결 확인 방식이 천차 만별이었다. 5,6학년의 경우 PC 활용 능력이 비슷하나 5학년은 콘텐츠 활용 중심형으로만, 6학년은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활용하는 등 학년 내 결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출석 확인 방식 또한 확인 시간과 대상이 학년별 특성에 따라 달라졌다.

동지역 대규모 학교인 C교는 위 두 개 학교의 경우와 또 다르다. 한 학급 당 학생 수 약 30명인 과밀학급이고 각 학년이 10~12개 학급으로 구성된다. C교도 B교와 마찬가지로 학년 내 협의에 따라 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허나 C교의 경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 모두에게 기기를 대여해 줄 수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수업 활동을 시도하기 곤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수업이 콘텐츠 활용 중심형 수업으로 운영되었다.

<표 IV-11> C교(65학급 규모)의 온라인 수업 운영 계획

항목	내용
원격 수업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융합하여 운영하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클래스팅’ 플랫폼 활용</li> <li>○ 단, 학생의 원격 교육 접속 기능 및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형태 중심으로 운영</li> </ul>
출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교육 기간의 출결처리는 ‘출석’ 또는 ‘결석’ 으로만 처리</li> <li>○ 출결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일 1회(오전) 출석 확인으로 ‘출석’ 처리</li> <li>단, 학생의 오후 학습 참여 확인을 위해 학년별로 별도의 점검 방법을 정하여 운영</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체크: 매일 아침인사(09:00~10:00) - 로그인으로 확인 =&gt; 출석 인정</li> <li>* 오후 수업 참여 확인(예시): 매일 오후인사(13:00~14:00)                      담임교사가 올린 오후인사 게시글에 답글 달기                      오후 수업 참여 확인 및 미참여 시 학부모 알림 및 상담 실시</li> <li>* 출석체크 관련 안내는 각종 학부모 홍보 및 주간학습안내, 플랫폼을 통해 지속 공지</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확인) <b>플랫폼의 자동 출석 체크 시스템</b> 우선 활용                      또는 학생-교사간 유선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활용</li> <li>*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 증빙 자료를 비대면 제출받아 확인</li> </ul> </li> <li>○ 원격교육 접속 곤란 학생의 출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결과물을 추후 제출받아 ‘출석’ 처리하되, 실시간 확인 방법에 따라 매일 유선 확인</li> </ul> </li> <li>○ 출석 확인에 대한 학생, 학부모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 점검 시간과 별도의 오후 학습 참여 점검 시간을 명시하여 계속 안내 실시</li> </ul> </li> <li>○ 원격교육 기반 부족으로 원격수업 참여 곤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처리) 사후 확인 방식에 따라 학습결과 보고서 등 학습 증빙 자료를 비대면 제출 받아 확인하되, 실시간 확인 방법에 따라 매일 유선 확인</li> <li>- (대체 학습 프로그램) 별도의 학습 안내, 오프라인 대체학습 프로그램 또는 학습 자료 제공하여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인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수립, 시행</li> </ul> </li> <li>○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원격수업 참여 곤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임교사-학생·학부모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유 확인</li> <li>-학생·학부모와의 협의에 따라 사후 확인 방식을 통한 출석처리 및 대체 학습 프로그램 제시하여 학습 결과 확인 시 출석인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학습 진행이 불가할 경우, 결석(질병/미인정/기타) 처리하고 이후 보충학습 시행</li> <li>○ 학습 불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 확인 과정에서 학습 불참 확인 시,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와 비대면 상담 실시 및 학습 참여 독려하고, 사후 확인 방식(학습 결과물 등)을 통해 출석 인정처리</li> <li>-출결처리 기준에 따라 실시간 확인 또는 사후 확인 방법으로 출석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른 결석(질병 / 미인정 / 기타 결석) 처리</li> <li>-인정할만한 사유 없이 지속적인 학습 불참 학생의 경우, 별도의 가정 방문 또는 학교 내교 요청하여 학습 참여 독려</li> </ul> </li> </ul>
--	--

출처: C초등학교(2020 : 3)

앞서 언급한 대로 C교는 온라인 수업에 원만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마련하였다. 원격교육 기반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원격수업 참여가 곤란한 학생 등 수업 참여가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 방안을 미리 강구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 학습 프로그램이나 과제물을 제공하는 등 학습을 지원하였다.

물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전면 원격 수업의 경험이 없고 선택의 폭이 넓어 이러한 운영 계획의 수립까지도 혼란이 거듭되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정답 또한 없었기에 학교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매일 협의를 거듭했다.

- 교사 김○○: 요즘 줌(Zoom)에 개인정보 유출, 서버 다운 등 문제 발생함.
- 교사 오□□: 인근 △△읍 소재 학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플랫폼 사용할 예정임. 가까운 선생님 만나서 방식 배워오겠음.  
(전문적학습공동체 협의록, 2020. 4. 1. A-2교)
- 교사 오□□: 리모트미팅 사용해보니 줌보다 편하고 간단함. 학교 예산으로 1년 사용권 결제하고 계정 등록하면 학교 내에서 사용 가능함.
- 교사 이▽▽: 유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학교는 드무니 서버 다운될 걱정 덜어 이 플랫폼 활용해보고 싶음. 줌은 초상권까지 침해 우려가 있어서 줌 사용은 최대한 피하고 싶음.
- 교사 김◇◇: 다른 학교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정보 공유가 편하니 고민이 필요함.  
(전문적학습공동체 협의록, 2020. 4. 2. A-2교)

보다 큰 규모 학교에서는 학년 내 협의와 연구를 통해 수업 운영 방식을 선택하였다. 교사 I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동학년 5명의 교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온라인 수업 방식을 익혔다고 했다.

교내에서 전체 담임교사 대상 연수는 있었는데 학년마다 정한 플랫폼이 다르다보니 수박 겉핥기 식이었지. 나를 포함한 동학년 모두가 연수 듣고 밤늦게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해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서로 알려주고. 나는 작년에는 전담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제일 먼저 해서 내가 선생님들께 가르쳐드렸던 기억이 난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시행착오 겪으면서 익힌 게 제일 도움이 됐어. (교사 I, 2021. 4. 30. 면담)

수업 뿐만 아니라 출석 인정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도 학교 또는 학년별 협의가 필요했다. 각 단위 별로 출석 인정 방법이 결정되더라도 담임교사의 역량에 따라 출석 확인 방법이 달라지기도 했다.

모든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공지만을 위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수업 안내하고 자료들을 일괄 공지로 올리면 학생들은 거기에 출석 댓글을 달았어요. (...) 구글 설문지로 학생들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학습과 도달 여부를 확인했어요. 공부한 흔적은 배움공책이든 교과서든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게 했어요. (교사 E, 2020. 11. 29. 면담)

실시간 화상수업을 2교시 정도 하니 그때 출석 확인하고, 클래스팅에 과제 올려서 제출하게 했어요. 제출한 과제들 피드백하면서 온라인 수업 이어나갔죠. (교사 J, 2021. 4. 10. 면담)

대개 학생과 교사 간 소통 플랫폼에 맞게 댓글 달기, 쪽지 보내기, 게시물 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출석 확인을 언제까지 하느냐, 출석 확인을 학생과 학부모 중 누구에게 하느냐 등의 방식은 결정 방식에 따라 달랐다.

## 라. 교사의 역량에 따른 차이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온라인 개학과 온라인 수업 운영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2020년 전면 온라인 개학 이전에 부분적으로나마 온라인 수업을 해 본 교사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맞이하는 데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다.

등교 수업 할 때 온라인 클래스 했었지. 복습 용도로 (컨텐츠) 올리고 애들 학습량 확인하고 평가하는 용도로 활용했어.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번에 (전면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도 컨텐츠 찾는 거나 e학습터 활용하기도 수월했지. (교사 E, 2021. 4. 9. 면담)

반면에 컴퓨터 및 관련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도 많았다. 이 경우에는 수업 진행이 미숙하여 더 부담감을 느끼고 수업 방식을 익히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

울어야 했다. 학교 입장에서 어려움 느끼는 교사들을 위해 연수 기회를 더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부 강사를 섭외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 교사 중 일부가 기능을 익혀 연수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사 세 명의 수업 장면을 관찰했을 때에도 각자의 정보와 경험에 따라 활용하는 플랫폼과 수업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교사마다 원격 수업 관련 연수 이수 여부와 활용 플랫폼에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업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 플랫폼 상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그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에 따라 수업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IV-12> 교사별 온라인 수업 관련 연수 이수 및 플랫폼 활용

	관련 연수 이수 시간	플랫폼 활용		
		화상수업	수업 자료 탑재	소통 및 과제 제출
교사 B	2	리모트미팅	e학습터	클래스팅
교사 I	5	ZOOM	e학습터	하이클래스
교사 J	6	ZOOM, e학습터	e학습터	e학습터

교사 B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여 대면 수업 기간이 대부분이었다. 제주 지역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6월 8일 대면 개학 이후 코로나19 진행이 크게 확산된 12월 중순까지 전면 대면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사 B가 근무하는 학교도 위와 같아 다른 학교들에 비해 온라인 수업 일수가 적었다.

처음 하던 게 편하니까 그대로 계속 했어요. 리모트미팅은 로그인 안 하고 접속코드만 입력하면 되니까 애들도 편하다고 했고, 클래스팅은 19학년도부터 쭉 (활용)했죠. 사실상 온라인 수업 한 건 2개월 쯤이고 6학년이라 학생들도 다 따라오니까 플랫폼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죠. (교사 B, 2021. 4. 30. 면담)

반면에 교사 I의 경우 지역 내 동지역 학교에 근무하여 온라인 개학 이후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 왔다. 교사 I가 속한 학년은 구글을 활용하기로 해서 일반적인 교사 대상 연수가 아닌 구글 웨비나(Google Web seminar, Google Webinar)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구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혔다.

구글에서 과제도 받고, 수업 자료 만들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비공식 연수라도 구글 웨비나 발표 들었지. 설문지로 성취도 확인도 하고 온라인 수업에서 생각 공유할 때 즉각적으로 전체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편했어. (교사 I, 2021. 4. 30. 면담)

교사 I의 경우에는 교내에 정보화기기 활용에 능숙한 선생님들로부터 연수를 들었다고 했다.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미숙한 부분은 옆에서 직접 가르쳐주니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의 종류와 그 기능보다도 학년 특색에 맞는 수업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20학년도에는 ZOOM 썼는데 e학습터에 수업이나 학급 운영에 편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더라고.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 여러 가지를 해보고 정보도 수집해서 하나를 고르셔. 그리고 연수도 해주니까 플랫폼 고민할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지금 (21학년도)은 애들이 3학년이라 여러 가지로 나누면 더 헤맬까봐 하나로 합쳐서 하기로 했어. (교사 J, 2021. 4. 30. 면담)

위와 같이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각 학교와 학년의 특성에 따라 수업 운영 방식이 달라지기도 했다. 또한 플랫폼의 개발과 플랫폼 자체의 사용료, 체계 등 운영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도중에 플랫폼 활용 등 운영 방식이 달라지기도 했다.

## 2. 온라인 수업의 경험

### 가. 수업 준비 단계: ‘멘땅에 헤딩해도 될까?’

#### 1) 수업 도구도 방법도 모르는 상황

개학이 여러 번 미루어지다 온라인 개학이 결정된 만큼 학교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매일 같이 새롭게 쏟아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숙지하고 온라인 수업 방법을 생각해 내느라 늘 회의와 고민의 연속이었다. 특히나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수업 기자재와 도구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 모두 불완전한 상태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서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몇몇 진취적인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그제야 필요한 도구를 알 수 있었죠. (교사 C, 2021. 2. 19. 면담)

교사 C가 그랬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방법을 모르다보니 교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는 늘 많은 질문과 고민이 올라왔다. 그 중에도 화상 수업 기능을 활용해보았거나, 정보통신기기 활용 수업을 해 왔던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커뮤니티에 탑재하여 이를 따라하며 수업을 진행해갔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플랫폼 활용 방법 등이 공유되더라도 장치 및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아 수업 방식의 결정에 제한이 있었다.

태블릿pc 1대랑 휴대폰 거치대 빌려줬지. 줌을 해야 하는데 마이크도 없어서 나중에야 마이크를 구입해줬어. 없을 땐 태블릿PC 켜고, 교실 PC도 켜서... 그러다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니 1학기 말 쯤 웹캠 제공되더라고. 아 뭐 화상회의용 소프트웨어 사준 것도 없고.(교사 E, 2021. 1. 14. 면담)

교사 E의 학교에는 교사용 마이크와 웹캠이 준비되지 않아 교사 E는 스마트패드로 촬영하며 수업 영상을 만들었다. 교실 컴퓨터를 통해 수업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은 스마트패드에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라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교사는 물론 학생도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마다 교실마다 구비된 비품의 성능도 다르기에 교사 E의 실물 화상기에는 마이크 기능이 없지만 교사 D의 실물 화상기에는 마이크 기능이 있어 비교적 수업의 운영이 수월했다.

우리는 웹캠, 마이크, 헤드셋. 우리는 마이크 안 되는 실물화상기라서. 애들한테는 대여 신청한 애들 한해서 태블릿PC 대여. 소프트웨어 사준 것 없고.(교사 D, 2021. 1. 14. 면담)

교사 D의 학교는 다행히 마이크를 처음부터 준비해주고, 학생들의 경우도 대여 신청한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빌려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

음 일단 학교에 뭐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 카메라가 없으니까 학교에 있는 노트북 빌려서 노트북 카메라로 수업 했으니까... 그래도 학년 말에 실물 화상기를 설치 해주니까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 시작했지. 그래도 애들 28명 중에 웹캠이랑 컴퓨터 같이 갖고 있는 아이, 노트북 가진 아이, 개인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패드 가진 아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아이 제외하고 3명만 학교에서 스마트패드를 빌려줄 수 있었지. 하나라도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빌려줄 수가 없었어.(교사 G, 2021. 1. 18. 면담)

교사 G의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기기가 부족했다. 그리하여 각 학생들의 가정에 어떤 기기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아무 기기도 가지고 있

지 않은 학생이 학급 전체 28명 중 3명이었다. 그래서 그 3명에게만 스마트패드를 빌려주었다. 하지만 사실상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 콘텐츠를 시청하기에 스마트폰은 역부족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를 빌려 간 학생들에 비해 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했다.

## 2) 수업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감정

### 가) 매뉴얼이 없는 데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온라인 수업이 학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교사가 수업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지침대로 따르고 정해지는 범위 안에서 자율성이 주어졌는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수업 기자재 선택부터 학생 지도까지 교사와 학교의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이 많았다.

처음 하는 거고, 자료도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가장 많았어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들 처음이라서 도움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니다.(교사 F, 2020. 10. 31. 면담)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과연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학습내용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사 J, 2021. 2. 22. 질문지)

교사 입장에서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이를 바로 실천으로 옮기고, 학급을 이끌어 나가야 했다. 기존에 해오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해내기가 부담스러웠던 터라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교사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 나) 개학할 수 있음에 다행스러움

6학급 규모의 학교에 근무하는 6학년 담임교사 A와 교사 B는 온라인 수업의 시작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다행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개학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학생들의 수업을 늦출 수는 없으니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라도 수업을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 A, 2021. 1. 11. 질문지)

저는 연임이라 애들의 가정 환경이나 학력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에 못 오니까 좀 어려운 애들이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해서 학생들 안부를 물어라고 하는데, 안부도 안부지만 학력이... 한 명씩 불러서 개인지도할까도 고민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곤란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으로나마 개학하니 좀 후련했어요.(교사 B, 2021. 3. 14. 면담)

학생 수가 많거나 중학년 학급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의 시작이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학생 수가 많은 경우 한 명씩 도와주기도 힘들뿐더러 가정에 온라인 수업에 활용한 기기가 없어도 기기 지원이 곤란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년의 경우 컴퓨터 활용에 서툰 학생들도 많은데 이들의 수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위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부담이 적었다.

#### 다) 학년에서 결정하는 수업 방식

규모가 작은 6학급의 경우에는 학교 전체에서 수업 방식을 결정했지만, 한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동학년 내 학급에서 교육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학년에서 수업 방식을 정했다. 플랫폼의 활용, 출석 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하여 학년에서 협의해가며 교육과정을 만들어갔다.

온라인 수업의 이미지는 내가 모든 영상을 만들고, 수업을 찍어야 하는 거라 처음엔 막막하고 두렵고 잘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어. (...) 그래도 한 학년 한 학급이 아니라 어떻게든 되긴 되겠다고 안심이 됐지. 혼자인 학년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야.(교사 E, 2021. 1. 14. 면담)

처음 옆 반 선생님이 줌을 제안했을 때 눈앞이 깜깜했어요. 난 안 해봤는데, 방법도 잘 모르는데 하자고 하니깐...(교사 D, 2021. 1. 14. 면담)

물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동학년 소속의 담임교사가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다른 경우 이를 설득하고 통일하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동학년 교사가 또래였던 교사 E와 달리 나이 차이가 많은 교사와 동학년인 교사 D의 경우 수업 방식의 결정에 더 큰 부담을 느꼈다.

한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는 경우 교사별로 과목을 나누어서 담당 교과 수업을 준비하기도 했다. 학년 내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하고, 각 교과 진도표에 맞게 각 담임이 담당 과목의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하니 컨

텐츠 또는 과제 중심형 수업 위주였으나 보다 질 높은 수업이 가능했다.

우리 학년은 8반인데 과목 전담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 선생님 당 과목 하나씩. 내가 과학을 맡으면 한 주에 수업 세 개만 만들어 두면 되는 거였지. 준비하는 수업 차시 수는 적지만 내가 준비한 자료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에게 공유되는 거여서 더 정성껏 만들었어.(교사 J, 2021. 3. 10. 면담)

온라인 수업 이전에 교사의 수업과 그 자료는 대개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만 공유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교사가 제작한 콘텐츠가 다른 학급의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공유되었으므로 수업 자료 제작에 더 고민하고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 나. 수업 상황: ‘빼끗하더라도 차근차근’

##### 1) 새로운 수업 방법의 시도와 배움

교사들은 학교 또는 학년 단위의 합의에 의해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다. 교사들은 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클래스팅, 네이버밴드 등의 SNS 플랫폼과 줌, 리모트미팅 등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해나갔다. SNS 플랫폼은 주로 수업 영상이나 자료를 올리고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조회·종례와 수업 진행을 위해 사용되었다.

조회나 종례는 리모트미팅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했어요.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게 한 후에 매 차시마다 시간에 맞춰 직접 제작한 영상과 유튜브로 찾은 추가 영상의 주소를 올렸어요.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했는지 확인했어요. 각 차시 게시물의 제일 아래에 질문을 올렸고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달고 서로 확인했어요.(교사 C, 2021. 2. 19. 면담)

수업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직접 찍어보기도 했어요. 직접 찍으려니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 다른 교사들의 자료를 출처 밝혀서 활용했어요. 선생님의 안내를 추가해서요.(교사 G, 2021. 1. 8. 면담)

담임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활용한 플랫폼과 프로그램은 다양했지만 초기에는 교사도 초보였고 어설프다. 온라인 수업 시작 당시 교사의 PC 활용,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달력, 콘텐츠 제작 능력 등 미흡한 점이 많았고 온라인 학급에서도 초보 수준의 관리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각종 교사 대상의 연수들이 점차 개설되고 교사들이 수업 방법을 익히며 수업을 발전해나갔다. 그 결과 기존에는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 수행형 등 일방향 수업을 진행하다 프로

그램 활용법을 익히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점차 늘려갔다. 실제로 제주 지역 교원 기준 2020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은 51.3%였으나, 2021년에는 교육청에서 90% 이상 운영을 명시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a). 교사 A, 교사 J, 교사 H를 포함하여 연구 참여자 모두가 온라인 수업 방법 연수를 이수하며 시작 당시에 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려갔다고 이야기했다.

6월 초까지는 네이버 밴드와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활용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당일 수업을 안내하며 아침 조회하고, 과제 제출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EBS 온라인 클래스로 콘텐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12월 14일부터는 밴드와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되 줌으로 조회 및 국어, 수학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과제 확인하고,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EBS온라인 클래스로 학습했습니다. (교사 A, 2021. 1. 11. 질문지)

1학기 때에는 e학습터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과제하는 형식으로 수업 했고 2학기 때에는 zoom과 e학습터를 병행했어요. zoom으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복습이나 문제 풀이... 그리고 조회 종례 했어요.(교사 J, 2021. 2. 22. 면담)

클래스팅을 주요 온라인 수업 플랫폼으로 사용했는데 클래스팅의 과제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론적 설명, 동영상 삽입, 문제 제시 등을 했음. 점차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질 높은 수업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줌을 이용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구글 페들렛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해나감.(교사 H, 2021. 2. 21. 질문지)

학생들도 대면 수업 기간에는 학교 일과표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데 반해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다. 담임교사들은 비교적 시공간적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편안해진 모습을 발견했다.

온라인 수업에는 분명히 이점도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 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깐요. 학교와 학원 수업이 중단되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대화할 시간도 소재도 많아졌대요.(교사 C, 2021. 2. 19. 질문지)

학생 대상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애들은 먹으면서 수업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구요.(교사 D, 2021. 1. 14. 면담)

학생들은 가족과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스스로 시간 활용이 가능한 점을 들어 온라인 수업에 긍정적이었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시간과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졌다. 특히나 5~6학년의 경우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지식 습득을 위한 교과 내용도 많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컸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을 오히려 좋아하더라구요. 등교해서는 여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나가다보니 오래 걸리는데 애들이 자신의 속도대로 학습하고, 자기 학습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하더라구요. (교사 E, 2021. 1. 14. 면담)

6학년 담임교사인 교사 E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좋아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력 격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하지만 교사 E의 학급의 경우 학생들이 학력과 무관하게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며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다. 특히 교사 E의 경우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미리 준비하고 보내 학생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대면 상황에서 보충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또는 중간놀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반면에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런 불편함 없이 보충 지도를 할 수 있었다.

자기관리 잘 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 학업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에게 유리한 것 같아요. 대면 상황에서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갈 텐데 모른 채로 지나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반복학습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친구들을 위해 예비 영상들을 몇 개 찾아두고,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그 영상을 제공해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콘텐츠가 무수히 많으니 제공해주면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교사 E, 2021. 1. 14. 면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방역을 위해 제한되는 학습 활동들이 많아 소그룹 활동, 토의·토론 활동 등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협력하는 활동들은 지양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도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줌, e학습터 등의 플랫폼을 통해 학생 중심의 활동들을 할 수 있어 학생들도 수업에 즐겁게 참여했다.

학생들이 소회의실에서 학습하는 걸 좋아하더라구요. 국어 대본 읽기 활동을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들어가보니 잘하더라구요. 오히려 온라인이라 모둠활동 할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특히 국어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크게 제약이 없는 듯해요. (교사 D, 2021. 1. 14. 면담)

코로나 19 상황이라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줌 소회

의실에서는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전체 수업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 학생도 소회의실에서 다 진행되긴 하니까. 모둠끼리 의견 나누는 수업에선 괜찮았어요.(교사 E, 2021. 1. 14. 면담)

교사 D와 교사 E는 대면 상황에서 제한되는 짝 활동, 모둠 활동을 화상으로 하니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했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교사는 소회의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니 수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 2) 불편하고 불안한 수업의 운영

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도구, 기기이고 처음 접해 본 환경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 속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 F와 교사 D는 칠판에 보드마크로 편하게 판서했던 것을 마우스로 화면에 표시하는 것, 칠판에 그리거나 말로 설명하던 것을 자료로 제작하는 것들이 번거롭고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불편했던 건 판서할 때 펜이 없는 경우 마우스로 하는 게 힘들었어요. (교사 F, 2020. 10. 31. 면담)

사실 온라인 수업 자체가 더 힘들어요. 매일매일 자료 제작하는 게... 말로 해버리면 끝날 걸 다 자료로 제작하고 있을 때...(교사 D, 2021. 1. 14. 면담)

또한 수업을 하는 도중에 교사들이 학생들과 화면 공유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나 그 자료들이 학생에게 온전히 송출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그 상황에 알아챌 수 없었기에 학생을 적시에 지원하기가 곤란했다.

온라인수업 끝나니까 교실에서 애들한테 어제 수업 내용 물어봤거든. 근데 영상이 끊겨서 영상을 못 봤다는 거라. 근데 나한테는 영상이 잘 보이니까 나는 모르지...(교사 F, 2021. 4. 22. 면담)

이렇듯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서버의 문제로 학생의 수업 참여에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에 과제 또는 콘텐츠 중심형 수업의 경우 자료 제작을 하고 나서 이를 마음 편히 탑재할 수 없는 것도 문제였다. 사진, 영상, 글, 음악 등 각 수업 자료의 저작권 때문이었다. 교사가 교실에서 자료들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 되지 않지만, 온라인 공간에 그 자료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고 온라인 수업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 하나 없이 수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았다고 답했다.

저작권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 했었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작권 문제로 인해 유튜브에서 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어요.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미지, 영상 등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수업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한 자료라도 많이 고민해야 되니까...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들도 기준이 다 다르고 EBS 강의 영상도 최대 몇 %까지만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안정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나는 어떤 자료를 쓸 수 있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만으로도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교사 C. 2021. 2. 19. 면담)

저작권법 제25조 3항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계없이 교사 C의 경우처럼 자료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수업 자료에의 접근은 교사와 학생만 가능해야 하고, 복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주어졌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료 제작과 수업 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했다.

### 3) 수업과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긴급돌봄

현 시점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54.8%(7~12세 아동, 2019년 기준)이기에(통계청, 2020)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가정에 혼자 남겨지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3학년 학생은 부모 모두가 출근하는 경우 집에서 스스로 수업을 수강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우므로 학년 초에 가정에서 원격 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학생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였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컴퓨터실, 도서관 등 등교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어 교사 G가 근무하는 B-4교의 경우에는 컴퓨터실에서 외부인력에 의해 긴급돌봄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공간 및 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교실에서 담임이 관리하는 학교(A-2교, C-2교 등)도 많았다. 연구자는 3학년 담임교사인 교사 J의 2021년 4월 14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영상을 시청 후 담임교사로서 학생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참관록을 작성했다.

1. 수업 일시: 2021년 4월 14일 08:50~
2. 학습 문제: 마음이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3. 수업의 운영  
8:50-09:00 10분 아침 독서 활동

09:00-10:00 인원 확인 후 수업 진행

10:00-10:08 하루 학습 및 과제 안내

#### 4. 학생 참여

- 발표하는 학생의 마이크만 켜.
- 학생 30명 중 23명 온라인 수업 참석, 7명 긴급돌봄 참여
- 긴급돌봄 학생의 목소리가 송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지도가 필요함.

(교사 J의 국어 수업 참관록, 2021. 4. 14.)

실시간 쌍방향으로 만나는 학생과 긴급돌봄 학생들을 동시에 관리하며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같은 공간에서 동시 접속하는 경우에 하울링(소리 울림)으로 인한 수업 방해가 심해 긴급돌봄 학생들은 학급 TV로 교사의 수업 화면을 시청했다. 수업 중간에 교사는 긴급돌봄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를 확인하며 소음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했다.

긴급돌봄 학생들은 또한 PC를 사용할 수 없어 발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교사에게 요청하거나 대답하며 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었고, 교사도 긴급돌봄 학생들의 이해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수업이 진행되므로 개별적인 도움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끝난 후에 가능했다.

같은 공간에서 실시간 쌍방향(수업)하고 긴급돌봄 학생들도 관리하려면 많이 불편한데 학교 사정 아니까 우리 학년 선생님들도 요구는 할 수 없지. 담임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 사고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 모호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반은 긴급돌봄 학생 7명이라 수월한 편이고 많은 반은 15명이야. 긴급돌봄 시작했으니 그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난처해.(교사 J, 2021. 4. 28. 면담)

긴급돌봄 운영의 취지는 이해하나 담임교사가 수업과 돌봄 학생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했다. 학생 전원이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전체 활동은 가능하나 대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룹 활동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3학년 담임교사인 교사 G와 교사 J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4) 오히려 난처한 대면수업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중간 중간에 대면 수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만, 학교 안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학교 전체적인 운영이 중지되고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은 곤란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제 온라인 수업에 많이 적응한 것 같은데, 대면 수업을 받으라고 학교에 나오다니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면 교실 안에서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교사로서 엄청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더라니까요. 대면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하니까 좀 위축됐어요. 모둠 활동, 단체 활동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없었잖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말하면 안되니 소통 없이 교사가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받아들이는 환경이어서 수업 구성에 제약이 너무 커요.(교사 C, 2021. 2. 19. 면담)

또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공정성, 투명성 등이 보장되는 학생 평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 시에만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조정되면서 평가계획도 조정되었지만 등교일수 보장을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평가 상황 연출이 거듭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다.

수행평가는 등교할 때만 하라고 하니 단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수행평가를 해야 하니까... 등교할 때, 온라인 수업할 때 해야 할 걸 구분하고 진도를 조절하는 게 힘들었죠. 우리학교는 일주일씩 번갈아서 수업했으니까... (….) 2020학년도는 정말 평가를 위한 등교가 됐어요. 시험 봐야 되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등교 수업이었어요. 평가는 하라고 하고 온라인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 오면 급하게 가르치고 내일 급하게 평가하는 식으로 했죠.(교사 G, 2021. 1. 18. 면담)

평가 시 학생이 직접 수행하는 장면을 교사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G는 평가를 위해 교육과정이 다시 또 다시 변경되어야 했다고 한다. 평가계획에 2단원 학습 평가가 있다면 온라인 수업 진도는 1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가 대면 수업을 할 때에 2단원 수업하고 평가로 이어져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학년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없고 혼란스러웠다.

#### **다. 온라인 학습의 생활 지도: ‘보이지 않는 학생, 희미해진 팀워크’**

담임교사에게 교과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 지도이다.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담임 교사가 곁에 머무르며 하나하나 살피고 지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했다.

학생 생활 지도는 편한 게 있죠. 학교에선 자주 싸우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는데 온라인 상으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교사 G, 2021. 1. 8. 면담)

대면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많이 줄어서 편한 점도 있었음.(교사 H, 2021. 2. 21. 질문지)

등교 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갈등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사는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와 여러 차례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생활지도 측면에서 오히려 편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학생 간 갈등이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와 학생 간에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눈앞에서 직접 보지 않아서 교사의 마음이 한결 여유로웠죠.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였으면 5분의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되잖아요. 수업은 해야 하고 갈등을 일으킨 학생들은 쉽게 입을 안 열고... 교사로서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는 아이들의 상황을 직접 보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게 되니 더 여유롭게 관찰할 수 있었죠. 또 학생들이랑 1:1로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하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된 것도 좋구요.(교사 C, 2021. 2. 19. 질문지)

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전체 대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교실 속에 흩어져있는 학생들을 세세히 살피고 지도하기 힘들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카메라에 비친 학생 개개인의 표정을 살필 수 있고, 학생들과의 연락을 통해 학생들의 수행과 결과물을 확인할 시간이 비교적 많았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 인솔 외부 행사들이 전면 취소되었다. 교사들의 담당 업무에 외부행사 추진이 포함되는 경우에 교사의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교사는 업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잘 살필 수 있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그거지. 행사 없어진 거... 행사 하나 나가려고 하면 애들 붙잡아서 연습시키고 결재 받고 당일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런 업무가 줄어들니까 애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여유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라도 더 알아보게 되고 챙겨주게 되더라고.(교사 B, 2021. 1. 14. 면담)

물론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 되는데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학급 구성원과 함께 할 경험 제공이 부족했다.

애들이 학교 오면 제일 기대하는 게 친구들과 만나는 거, 스포츠 활동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원격) 수업 기간에는 친구들과 만나라고 할 수도 없고, 스포츠 활동도 개인 과제로 영상 찍어서 제출하고 그 정도니까... 애들 마음 건강도 걱정되죠. (교사 F, 2020. 11. 14. 면담)

수학여행이라고 기대했는데 숙박은커녕 학교 밖으로도 못 나가니까 미안했지. 같이 계획도 짜보고 여행에서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진짜 수학여행인데... (교사 E, 2021. 1. 14. 면담)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체험학습, 스포츠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교과 외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런 기회들을 폭 넓게 제공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끼리 가까워지기도 힘들고 각자의 스트레스나 피로도 해소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그로 인해 만들기, 전통놀이, 요리 프로그램 등 교내 체험 학습 프로그램들이 다수 운영되었다.

현장체험학습을 교외로 못 가니까 교통비로 나갈 예산들을 교내 프로그램 체험비로 쓸 수 있어서 등교 기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전통놀이 체험, 빙떡 만들기 체험,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하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 좋아했죠. 기존이라면 1년에 네 번 밖에 못 가는 현장체험학습인데 교내체험학습이 되니 도자기도 만들고, 만들기 체험도 다양하게 했죠. (교사 G, 2021. 01. 08. 면담)

온라인 수업 이전에는 교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장소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방문하기가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연간 2회 이상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모두 교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교통비를 절약하는 대신 더욱 풍부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과 좋거나 아쉬웠던 경험도 있지만 답답한 상황도 있었다. 학생들이 조회에 참여하거나 공지 게시물에 댓글을 달기만 해도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과제를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대면 상황에서는 지각 또는 과제 미제출 시에 개인 상담으로 회유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학습 참여를 독려하기가 곤란했다.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고 참여하도록 고민해서 수업을 구안해도 학생들과 연락이 안 되고, 학습을 하도록 이끄는 게 힘들었어요. 학습을 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과제를 내지 않았을 때에 가하는 제약이 없어요. 새벽에 과제를 제출하기도 하니 피드백을 하다보면 근무시간 외에도 학생 관리가 이어졌어요.(교사 E, 2021. 1. 14. 면담)

대면 수업에서는 제시간에 학교에 와야 하고, 조퇴나 결과 등 사유를 제외하고 전 일과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출석 혹은 결석으로만 나뉘고 출석의 기준 또한 댓글 남기기, 과제 제출하기 등 간단한 과제였다. 그렇기에 일부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고학년일수록 더 심각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제주 지역 교원 2,835명을 대상 설문 결과에 의하면 교원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습 습관, 집중도 유지(32.6%)를 꼽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a).

시간 지키기, 수업 예절 같은 것도 대면이랑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하고, 학부모님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죠.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종종 온라인 수업으로 했던 내용을 대면 시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교사 F, 2020. 10. 31. 면담)

학생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학생들은 잠을 자느라 또는 깜빡해서 등 개인적인 이유로 수업에 출석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전화에서 깨우기도 하고 이마저 안 되면 부모님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연락을 수시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애들이 시간을 맞춰서 줌에 들어올 수 있게 훈련이 필요해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학생을 깨우기가 힘들니까 등교 기간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훈련시켜야죠. 학부모한테 깨워달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편이에요. 조회에 참석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클래스팅에 올리고, 중요 사항은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죠. 그러니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계속 연락의 반복이에요.(교사 G 2021. 1. 8. 면담)

3학년 담임교사인 교사 G를 포함한 동학년 학급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늦잠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수업 시작 시간과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학습 태도를 보며 걱정이 깊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 뿐더러, 수업 자체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수업에 무관심한 일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나 카메라를 켜라고 해도 안 켜고, 원맨쇼 같이 느껴질 때 힘들더라구요. 공부하는 게 힘든 걸 알아서 이런 저런 활동들을 같이 해도 결국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아무도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고, 우리만 고생하는 느낌이 들 때 힘들었어요.(교사 E, 2021. 1. 14. 면담)

애들이 카메라를 끄니까 까만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할 때가 많죠. 종종 중간에 강제로 마이크나 카메라를 켜줄 때 노래 부르거나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들키기도 했어요. 그럴 때도 화가 나기보다는 얼마나 재미없으면 이럴까 싶으니 나 자신이 작아졌어요. 학교에서 노트북을 빌려줬는데도 휴대전화로 수업 들어오고. 놀러 나가면서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집 밖이 위험하니까 학교도 안 오는 건데... (교사 B, 2021. 1. 14. 면담)

수업 중 학생이 게임하거나 노래 부르는 행동 등 대면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해 교사들은 당혹감과 허무함을 느꼈다. 교실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제지가 가능하다. 허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간에 게임이나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도 누구로부터 들리는 소리인지 쉽게 알 수 없어 더욱 더 지도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는 기기 지원이 곤란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일부 학생은 지원받은 기기를 활용하지도 않는 불성실한 태도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 라. 학부모와의 관계: ‘경기장 밖의 동료’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대면 수업에 비해 학부모와 연락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우선 학생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수시로 연락하며 확인해야 했다. 또한 아침에 학생의 출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부모 또는 학생과의 연락을 통해 하는 경우도 잦았다.

3~4월에 전 학생의 학부모에게 3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일 년 동안 할 만한 통화량을 한 달에 다 채운 셈이죠. (교사 F, 2021. 4. 21. 면담)

그때(4월 경)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니 문제도 많아서 학교에서는 이들에 한 번 전화 하라고 했잖아요. 얼굴 확인도 못하고 낮 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전화로 확인하는 건 이해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콜센터 같은 느낌? (웃음)  
(교사 C, 2021. 2. 19. 면담)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이 학부모 공개수업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 이 경우 수업 자료의 제작도, 교사의 언행도 더 조심스러울 뿐더러 학생들의 태도와 결과물까지도 어떻게 공유되는 것이 좋을지 난처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학생의 개인정보가 카메라를 통해 공개되면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쌍방향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의 집을 제가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옆에서 봐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다른 친구들도 보게 돼요. 도움을 받은 친구가 발표를 하려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거 너 엄마가 도와준 거잖아’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면이 평소 수업과는 다르죠. 항상 공개되는 수업이다보니, 학생의 환경이 서로 공개되고, 수업도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상황이지요.(교사 F, 2020. 10. 31. 면담)

교사 F는 온라인 수업 당시 교사의 언행도 공개되지만 학생의 가정환경까지 공개되어 난처했다고 이야기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공개되는 학생의 사생활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도 학생들도 조심해야 했다.

담임 교사들은 위와 같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경험하며 온라인 수업에 더욱 적합한 수업 방식을 찾았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 학생 간 갈등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 환경에 더 만족하고, 개별화 수업 방식이 가능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 또한 발견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교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수업 운영, 수업 자료의 활용,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 3. 온라인 수업의 의미

#### 가. 수업혁신: ‘기존 수업 방식의 알을 깨기’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교사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더 유리한 수업 활동들도 구안해냈다. 대표적으로 조사 및 탐구 학습이다. 학교에서는 컴퓨터실 사용 가능한 시간과 스마트패드의 개수가 한정적이어서 학생 개인별로 기기를 사용할 기회가 부족했고 조사활동은 과제로 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바로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여 발표하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어떤 차시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 더 효율적이기도 했어요. 온라인 수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컴퓨터든 태블릿PC든 핸드폰이든 장비가 있으니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 사회 시간에 우리고장 자랑거리 알아보기라는 주제에 대해 학습할 때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서 화면 공유를 통해 바로 발표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장비를 빌리거나 컴퓨터실에 가야 해서 좀 불편해요.(교사 F, 2020. 10. 31. 면담)

애들에게 노트북이 하나씩 주어지니 좋아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생명존중교육을 할 때에 평소라면 영상 같이 보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전부였을텐데 영상 보고나서,

영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영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찾고 고민할 시간이 있으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고민도 더 깊어지더라고요.(교사 B, 2020. 1. 14. 면담)

이러한 조사 및 탐구 수업들을 더 많이 체험해보니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컴퓨터를 활용한 배움의 시간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발달한 듯 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로는 게임 영상,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영상만을 계속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나 오케스트라, 연극 영상을 직접 찾아보고 자신의 느낀 점을 남기면서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 네이버를 활용하여 모르는 내용을 검색하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기간이었습니다.(교사 C, 2021. 2. 19. 질문지)

교사 I의 5학년 수업을 참관했을 때에도 학생들의 의견 공유 방법이 달라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글 패들렛(padlet) 화면을 공유하면서 교사가 판서 내용을 입력하자 학생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입력했다.

1. 수업 일시: 2021년 4월 16일 09:00~
2. 학습 문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 공유하기  
(...)
4. 학생 참여
  - 구글 패들렛에 “세월호 참사란~” 으로 시작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작성한다.
  - 교사가 학생들이 입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발문하며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거나 자료를 탐색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한다.
  - 교사가 학생들의 입력 자료를 종합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콘텐츠를 함께 시청한다.
  - 학습 후 생각을 공유한다.

(교사 I의 국어 수업 참관록, 2021. 4. 16.)

기존 대면 수업에서는 포스트잇이나 보드에 직접 적어 생각을 공유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유하기까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 및 종합할 수 있기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다.

## 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 ‘현실은 꿈보다 쓰다’

일부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반겼다. 시대의 흐름과도 맞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율적인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생각은 달라졌다.

아직은 애들도 선생님이 옆에서 코치해주는 게 익숙하잖아.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 해서는 이거 하세요, 저거 내세요,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진짜 애들 집에 내가 갈까 싶었던 순간이 많아. 계속 이럴까봐... (교사 D, 2021. 2. 21. 면담)

대면 수업이랑 온라인 수업이랑 애들 집중하는 건 비교를 할 수도 없어. 학습 동기도 떨어지고 성취도도 떨어지고. 걱정스럽지. (교사 F, 2021. 4. 22. 면담)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에 등교할 때에 비해 참여 태도가 소극적이고 성취도 떨어지다 보니 교사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 진행에 답답함을 느꼈다.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 이러한 학생의 성장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수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일방향의 전달식 수업이 더 많았다.

애들이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유롭진 않잖아요. 내가 찾은 양질의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고 얘기 나누려고 해도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일어나지도 않고... 확실한 게 직접 교수법이라서. 내 이 생각을 바꿔야지. 고학년부터라도 화상회의 툴 활용법을 배우면 수업하기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교사 C, 2021. 3. 14. 면담)

나도 돌이켜보면 다양하게 해 봤는데 놀이나 토론은 이벤트 정도고 과목 수업은 다 전달식이었네. 콘텐츠 보여주고 잘 이해했는지 문제 풀어보고 정리하라고 했어. 사실 다들 대면수업 하던 방식이 그건데 어떻게 온라인 환경에서 확 달라지겠어. (교사 H, 2021. 2. 21. 면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권장했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대부분 전달식이었다.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기대한 만큼 자유롭지 않았다. 기존의 대면 수업 방식이 전달식 수업이고, 낯설고 불편한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기가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3학년의 경우 온라인 수업 그 자체를 하는 것에도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의 학교는 교육만큼 보육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긴급 돌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급에서 돌봄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는 것은 무리였다.

학교가 긴급돌봄을 해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상황은 이해하는데 학교가, 담임교사가 너무 많은 역할을 떠안는 느낌. (교사 J, 2021. 2. 22. 면담)

실제로 2020학년도 이후 담임교사들이 3학년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1~2학년은 긴급돌봄과 방송시청만 하고, 4~6학년은 온라인 수업만 하지만 3학년의 경우 긴급돌봄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한다면 공간 마련 및 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답했다.

#### 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응: ‘과학 기술과 인간의 공생하기’

새롭게 도전한 온라인 수업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이전에는 사회가 변화고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교실 수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은 교사로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변화를 실천하게 했다.

교사도 사회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상상치 못한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거지. (...) 고민도 많아졌고.(교사 F, 2020. 10. 31. 면담)

아직 온라인 수업이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함. 새로운 교육 방향에 맞춰 신기능을 숙달하고 새롭게 배우는 자세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갈 생각임.(교사 H, 2021. 2. 21. 질문지)

일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컴퓨터가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고,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을 대신하리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반면에 교사들은 컴퓨터가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현 시대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교사 A와 교사 J는 학생들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의적 측면 지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감정을 다루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겠어요.(교사 A, 2021. 1. 11. 질문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개별특성을 파악하고 피드백해주는 교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교사 J, 2021. 2. 22. 질문지)

적어도 초등 교육에 있어서 교사랑 학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면 학교나 교사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은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학교와 교사가 지식 전달만이 아니고 생활지도,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확신을 가졌지. (교사 H, 2021. 2. 21. 면담)

이렇듯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교사 F와 교사 B는 시대에 맞춘 교사의 수업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방법을 고민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저만 얘기하면 절대 애들이 수업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애들이 더 많이 얘기하고 직접 해봐야만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고, 수업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는데 교실 상황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수업 도구랑 방식에 대해서도 더 배우면서 시대의 변화에 저도 속도를 맞춰야죠. (교사 F, 2020. 10. 31. 면담)

초등학생들 중에도 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사가 모든 학생이 아는 만큼 알 수 없죠, 이제 애들도 알아요. 이젠 교사가 뭘 더 가르쳐주려고 하기보다는 학생 각자가 아는 걸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겠죠. 또 그러려면 저도 더 알아야 하고, 수업 방식도 바뀌어야 하구요. (교사 B, 2021. 1. 14. 면담)

온라인 수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원도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 시작 당시에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미비했다. 온라인 개학 이래 초등학교 기준 학생용 스마트 단말은 4명당 1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학교 무선 인터넷망 또한 학급 수 대비 138% 구축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c). 이렇듯 1년 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이 구비되었지만, 아직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불편한 점이 많다.

우선 장비 등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겠죠. e학습터에는 불필요한 탭이 있기도 하고, 줌은 끊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때 연락도 잘 안 돼요. 학습이나 생활에 대해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교사 F, 2020. 10. 31. 면담)

교사 F는 학생, 학부모와 수업 중 효과적으로 연락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상황이 많다. 학생이 제출한 학습 과

제나 출석, 수업 태도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야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락이 잘 안 닿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이 지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전화 외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단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기기들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컴퓨터 등을 사용했다. 교내에 학생 수 만큼 태블릿PC나 노트북이 구비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기 대여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만 가지고는 과제 중심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가 곤란했다.

학생들의 가정에 학생 개인별로 수업을 위한 기구들이 확보되어야겠어요. 휴대폰 말고요. 저희 학교는 휴대폰이 있으면 패드를 빌려갈 수 없었어요. 작은 휴대폰으로 수업을 전부 하려면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고 잘 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교사 G, 2021. 1. 8. 면담)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지원하고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에 한해 스마트기기를 대여해주었다.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참여하도록 학교 내 모바일 데이터를 지원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20).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나 태블릿PC가 아닌 PC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많다. 정보 검색, 한글 문서 작성, 화상 회의 플랫폼 활용 등을 휴대전화로 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 참여 가능하도록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풍성한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 가정의 기기 지원이 필수적이다.

수업 도구가 있어도 수업 운영에 미숙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을 공유하는 교사 연수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배포된 온라인 수업 사례집이 있었으나 교사들은 이는 이 외에 교내 연수, 콘텐츠, 플랫폼 등 실제로 수업 운영에 적용 가능한 지원을 선호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교원들은 원격수업 관련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콘텐츠 제공(18.6%), IT 장비 및 환경 개선(18.1%), 자료 제작·공유 플랫폼(16.0%)을 꼽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a).

수업 영상 제작 연수도 필요하고, 학교 안에 좋은 사례들이 공유되면 좋겠어요. 좋은 수업 사례 자료들은 부담스럽고, 학교 안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러 가지 수업을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요. (교사 E, 2021. 1. 14. 면담)

수업 도구와 템플릿 등 인프라와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도 요구되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체재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수업 운영 계획이 와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출석 기준 등의 수정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도 성실히 출석 및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출결 이런 것에 관한 권한이 없잖아. 그렇지? 이 부분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교사 J, 2021. 2. 22. 면담)

출석 혹은 결석으로만 구분되는 출석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온라인 수업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출석 확인만 하고 과제를 내지 않거나 수업 내내 카메라를 끄고 참여하지 않는 고학년 학생들이 다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의 출석 기준과 권한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 수업은 현재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도 운영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원만한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교사의 역량 개발, 교사 대상 연수 및 사례 공유, 출석 기준 개정을 통해 더 나은 온라인 수업 운영을 기대한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면서 온라인 수업에 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 수업의 맥락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3~6학년 담임교사 10명으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 중 3인의 수업 장면을 관찰하였다. 또한 1개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협의록과 3개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참고하였다. 연구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맥락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경험 살펴본 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삼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게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어떤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의 맥락을 교육정보화 정책의 추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른 학사운영, 학교별 운영, 교사의 역량으로 구별하였다. 우선,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 하에 교육정보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일부 교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정보화 기기 활용 수업을 시도해왔고 학교에는 정보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엔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2020년 이후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구성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가 수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등교 수업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대개 3~6학년 학급은 번갈아가며 온라인 수업이 운영되었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학교 규모가 크고 학급 당 인원수가 많은 경우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번갈아 가며 운영되었다. 반면에 규모가 작고 전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온라인 수업을 운영했다.

학교에 따라서도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학교 자율화 이후 교육청이 아닌 학교 조직이 그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고, 온라인 수업의 운영 또한 그러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이,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 구성원이 온라인 수업 및 출결 처리 방식을 결정했다. 또한 학교별 상황에 따라 정보화기기 학생 지원 기준, 수업 미참여 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온라인 수업 운영에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교사 역량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운영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전면 온라인 개학 이전에 부분적으로나마 온라인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온라인 수업의 시작이 수월하고 운영도 익숙했다. 반면에 온라인 수업의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며 연수를 통해 수업 방법을 익혀야 했다. 결정된 수업 플랫폼에 따라 수업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교내외 연수 기회로부터 얼마나 익히고 어떤 플랫폼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수업 운영에 큰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해당 학급의 수업 환경에 보다 알맞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활용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 살펴보면 수업의 경험을 수업 준비 단계, 수업, 학생 생활 지도, 학부모와의 관계로 구별하였다. 우선 수업 준비 단계에서 온라인 수업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은 수업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고, 매번 지침이 수정되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수업 및 학습 장치가 구비되지 않아 수업 방식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는 처음 시도하는 수업 방식과 매뉴얼이 없는 데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학생의 학습 결손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개학할 수 있음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학교 또는 학년 단위에서 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하다보니 서로 분담하며 협력되는 부분도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교사들은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했다. 학급에 맞게 소통과 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선택하여 수업을 운영하되 점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을 늘려나가며 점점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도 찾아갔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준과 환경에 맞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발견했다.

하지만 수업 자체는 불편하고 불안했다. 교사들은 수업 도구와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았기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수업 자료 공유에 관해 서버의 다운 문제, 저작권 문제 등으로 불안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에는 수업과 동시에 긴급 돌봄도 운영해야 하는데, 긴급 돌봄이 학급에서 담임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라 대면 수업 기간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기도 했다. 학생들끼리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기에 수업 및 생활 지도에 제한이 많았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면 시기에 평가를 다 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담임교사이기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한 신경 써야 했다.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지도하면서 학생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없어 교사 입장에서는 생활 지도가 수월했다. 밀집 제한으로 인해 교외 행사가 줄어들어 업무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그 태도가 불성실해 갈등이 있었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을 독려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했다. 하지만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모든 온라인 수업이 학부모 공개수업이 되는 듯해 부담감을 느꼈다. 또한 학생 안부 확인, 학생 과제 제출 독려 등 학부모와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이에 부담을 느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공개되는 학생의 가정환경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기존 수업의 변화 가능성 또한 느끼고 실천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이전부터 수업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겪은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지수(2020)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은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 투입의 어려움, 저작권 문제, 초상권 문제, 기기 사용 미숙, 정신적·신체적 번아웃, 경직되고 획일적인 수업의 한계, 학습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서나래, 2020)에서는 수업 중 소음 등 방해 요소, 시스템 관련 민원, 학생의 수준과 수업 이해도 파악의 어려움, 학생과의 상호작용 제한 등을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단점이라 제시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학급의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석과 학습을 꾸준히 독려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 빈번하게 상담을 해야 했다. 또한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 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불안정함 속에서 수업을 이중으로 준비하고 긴박하게 교육과정 진도표를 조정하고 학생들의 학습 준비물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 들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한 학년도를 보내면서 여러 지원을 통해, 또는 개인의 노력으로 각 문제들을 해결하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학생 주도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식들을 시도해왔다. 그리고

교사들은 조사 수업, 탐구 수업, 소집한 토의 수업 등의 수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찾아냈고 점점 온라인 수업의 운영이 안정되어가고 있다. 김범규(2021)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소극적인 학생들도 참여가 증가하고 동료교사와의 협력 증대, 교수 역량 강화 등 온라인 수업 운영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는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진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돌파구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백지혜(2021)의 연구에서 초등 교사들은 전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 제공의 곤란함, 경직된 교육과정의 운영, 학업 성취 정도의 저하, 학습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들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강의식 수업 위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슬, 신범철, 정양순(2021)은 온라인 수업이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정부의 기기 지원도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보호자의 도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습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에 학습 격차가 심해진다고 보았다.

이 외에 담임교사로서 느낀 불편함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담임 교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3학년 긴급 돌봄이다.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에 보육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담임교사가 떠맡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이 곤란했기에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시급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경험을 통해 수업의 변화 뿐만 아니라 교사와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동안 교실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던 교수자, 지휘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아닌 조언자, 평가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교사, 학생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의존하며 수업의 주체가 되어야 온라인 수업 장면에서도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혜진(2020)도 교사는 미래 교육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활동이 줄어들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습을 조력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전환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오재호(2020)는 교육 혁신을 위해 전통적인 교실에서 온라인과 지역사회로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학생의 수

준에 맞게 학습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하는 개인교습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았다. 콘텐츠나 과제 수행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온라인 환경에서 전인교육과 인성 교육 방식의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 수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요구하였다. 그간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 이래로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아직 모든 곳에 손이 닿지 않았고, 학교마다 지원 내용과 규모가 달랐다. 학생들의 학습 기기 지원 확대, 수업 장비 확보, 교사 대상 연수 및 사례 공유 활성화, 그리고 출석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

서나라(2020)도 학교별 온라인 수업 지원 시스템에서의 큰 차이를 지적하며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학교 간 연계나 교육청 차원의 우선적 지원책을 통한 수업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이예슬, 신범철, 정양순(2021)은 교사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교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방법을 교원 연수와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담임교사들은 출석 인정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만큼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 와해, 잦은 상담으로 인한 교사의 번아웃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출석 인정 기준을 바꾸어 보다 편안한 온라인 수업이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온라인 수업이 초등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들은 사회는 변하지만 교육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또 한 번 절감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수업방식을 시도해왔지만 아직까지는 일방형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과 상호의존하며 함께 배워가는 수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온라인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기와 수업 장비가 구축되어야 하고,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이 길러져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연수와 사례 연구 등 실습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식을 선호했다. 또한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와 지각 등 온라인 수업 예절을 준수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출석 확인으로 인해 기력이 소진되기도 한다. 온라인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출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낯선 온라인 수업을 맞이했지만 이는 결국 미

래 교육의 첫 걸음이고 변화의 시작이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한다면 온라인 수업은 학교 현장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2.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의 맥락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들여다봄으로서 이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업 장면을 관찰하였으며 학교의 온라인 수업 관련 문서들을 탐독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수업의 운영에는 교육정보화 정책, 코로나19 진행 상황, 학교의 결정, 담임교사의 역량이 영향을 미쳤다. 각 학교는 온라인 수업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의 인프라 구비 정도, 코로나19의 전파 여부, 지역과 학교 구성원의 특성, 담임교사의 결정 등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운영 형태가 달라졌다.

둘째,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 인프라가 완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기존에 경험해보지 않은 형태로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부담감과 혼란스러움 등을 느꼈다. 특히나 교과 담당 교사와는 달리 담임교사로서 수업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 독려, 잦은 학부모와의 상담, 긴급 돌봄과 온라인 수업 동시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셋째, 온라인 수업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다. 기존 수업 방식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탐구 학습 활동들을 연구하며 적용할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담임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변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른 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경험한 온라인 수업의 맥락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영향을 준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교육정보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각 학교 별로 학습 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외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수업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 학습자 중심 수업의 가능 여부는 교사와 학생에게

구비된 기기와 학교 및 교사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는 온라인 수업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이래로 원활한 온라인 수업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아직 손이 닿지 않은 곳도 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별 온라인 수업 운영의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이 연구가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과 대면 환경을 번갈아가며 학급과 수업을 운영한 담임교사의 총체적인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 교과 전담 교사와는 달리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지도, 인성교육, 안전 관리 등과 더불어 학부모 상담의 직무까지 담당한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각의 직무에 부응하는 노력에는 차이가 있었기에 담임교사들은 혼란스러움과 부담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 활동과 플랫폼 연구, 개별 피드백 및 과제 제공, 잦은 학부모와의 상담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대책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 지역 초등학교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심층 면담을 주요 연구 자료 수집 방안으로 삼았으나 약 6개월 동안 각 담임 교사와 1~4회 면담을 실시하여 보다 깊은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볼 수 있다. 만일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연구는 온라인 수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 3~6학년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체적인 온라인 수업 상황을 파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3~6학년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1~2학년 담임교사, 과목 전담교사, 관리자, 공무원 등을 포함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강명희, 한승연, 김민정, 윤성혜, 임현진, 백가영, 강민정, 김세영, Sara Florian, 김세희(2015). 한국의 교육정보화 모델.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고종극(2010).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대섭(2007).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교육과 교사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권혁운(2010).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 27(3), 191-214.
- 김도현, 김영천, 이근호, 이현철(2007).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운영사례 질적연구: 운영유형별 핵심성공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107-137.
- 김미정(2021). 원격수업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김범규(2021). 초등교사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이경, 한만길, 박영숙, 홍영란, 백선희(2005).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재춘, 박소영(2004). 선택 과목의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의 활용 방안 탐색. 한국교육, 31(3), 1-19.
- 김정량(2004). 사이버초등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교육학회지, 8(3), 385-396.
- 김정렬(2001). 웹기반 영어 교육. 서울: 한국 문화사.
- 김진숙(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해진 역량, '디지털 시민성'. 월간 공공정책, 176, 22-25.
- 김철주(1997). 정보화시대의 원격교육 활용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 4(2), 5-12.
- 김혜숙, 신한나, 김한성(2020). OECD PISA 2018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과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혜진(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

- 과교육연구, 20(20), 613-639.
- 남선우(2020). 에듀테크 기반 플립러닝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인문사회 21, 11(3), 1677-1691.
- 노경희, 이준, 엄철현, 장시준, 정영식(2011). 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박덕규, 김지순, 방대곤, 손동수(2003). 교원의 표준 수업 시수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선호, 최희경(2020). 코로나19시대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초등영어교사들의 목소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273-295.
- 박영숙, 정광희(1999). 능력 중심의 교사 직무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유신, 조미라(2017). 미래사회를 위한 포스트휴먼 교육. 미술교육논총, 31(2), 179-216.
- 박은혜, 김교령(2021). 교육부 1-6차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과 유아교육의 연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6(1), 99-123.
- 박혜정, 최명숙(2008). 대학 교육에서 e-러닝의 학습효과와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 분석. 교육공학연구, 24(1), 27-53.
- 박휴용(2019).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의 미래.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백지혜(2021). 원격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나래(2020).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안나(2014). 스마트교육 정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찬희, 강성국, 하성준(2014). 스마트교육 차원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2014년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1, 374-384.
- 송상호, 신종호(2002).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이버 학습 역량 탐색. 교육정보미디어 연구, 8(1), 49-78.
- 송해덕, 김규식(2015). 국내 교육정보화 정책 변천에 따른 교육공학 연구 동향 분석. 교육공학연구, 31(2), 341-363.
- 신서영, 박창언(2020).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147-167.
-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2020).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31-144.
- 오재호(2020).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 & 진단, 421, 1-25.
- 오지수(2020). 원격수업에서 초등 영어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 :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이가은(2015). 초등교원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초등교원 양성교육과정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이대식(1997). 초등학교의 수업외적 업무부담이 교수활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범웅, 허숙(1994). 교사와 교직생활. 서울: 지식과감성.
- 이병진(1998). 현장교사론. 서울: 양서원.
- 이예슬, 신범철, 정양순(2021).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교육학연구, 59(1), 131-165.
- 이은경(2016). 포스트휴먼을 위한 교육 가능성 탐구. 신학과세계(86), 83-111.
- 이은적(2020).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의 학교와 미술관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62, 203-225.
- 이은지(2019).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먼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미술교육 콘텐츠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14(1), 1-24.
- 이의재, 제성준, 윤현수(2020).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상황에서 고등학교 경력 체육 교사가 겪는 온라인 수업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339-362.
- 이인지(2020). 초등학교 원격수업에서 특수교사의 경험.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이준, 이충현(2005). 초·중등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 D 교육청 영어과 사례연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지, 8(2), 154-178.
- 이준, 정순원(2012). 초중등학교 온라인 수업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대한교육법학회지, 24(3), 125-146.
- 이충현(2009). 온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수업을 위한 효율적인 콘텐츠 유형과 교수 학습 방안. 외국어교육연구, 23(1), 103-134.
- 임현정(2006). 온라인 중학 영어 읽기에서 교사와 학습자간 상호작용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장혜진, 신서영, 박창연(2019).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인간'으로 향하는 교육.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269-279.

- 최성철(2020). 마음껏 상상해보는 코로나 이후 수업의 변화. *대한산업공학회지*, 27(2), 14-19.
- 최형미, 이동국(2020). COVID-19에 따른 중등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047-1071.
- 하우동설(2011).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비대면 시대의 원격 수업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홍성룡(2003). 웹기반 영어교육의 온라인 학습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4(2), 167-179.
- Cook, J. P(2016). *The Posthuman Curriculum and the Teacher*. Doctoral Dissertation for Georgia Southern University. Statesboro. Georgia.
- Creswell, J.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Lee, C. H(2000). A Comparison between Users' and Non-users'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Media Technology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at University Level. *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16(1), 17-50.
- Moustakas, C. E(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 참 고 자 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교육부(2014).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
- 교육부(2019a). 2019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교육부(2019b). 제6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안)(2019~2023).
- 교육부(2020a).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 교육부·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방역·학습·돌봄 3대 안전망 발표, 보도자료 2020.8.11.일자.
- 교육부(2020b).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보도자료 2020.3.31. 일자
- 교육부(2020c). 2020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교육부.
- 교육부(2020d).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교육부.
- 교육부(2020e).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 교육부.
- 교육부(2021).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 교육정보화백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정보화 3단계 발전방안.
- 김나현, 홍순빈, 정한결(2021. 1. 30.). 사립초등학교로 몰려드는 학생들... 코로나가 키운 교육 양극화. 머니투데이. 2021. 2. 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812380452983>
- 박재명(2020. 4. 30.) 온라인 수업 3주... 적응은 빨랐지만, 평등하진 않았다. 동아일보. 2020. 10 2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30/100872622/1>
- 서귀포초등학교(2020). 2020 원격수업 운영 수정 계획. 서귀포초등학교.
- 아라초등학교(2020). 아라초등학교 2020 원라인(원격) 수업 운영 계획. 아라초등학교.
- 윤근혁(2020. 7. 2.). 한국은 1%, 영-미는 33%...'온라인 수업 결석' 국제편차 30배↑. 오마이뉴스. 2021. 1.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2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2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이진영(2021. 5. 6.). 네이버클라우드, e학습터 화상수업 지원. 뉴시스. 2021. 5. 1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6\\_0001432473&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6_0001432473&cID=10201&pID=102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등교수업 및 밀집도 조정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a), 2021년 원격수업 지원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b). 2021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c).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 상세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장지훈(2020. 9. 21.) 교사 80% “원격수업으로 격차 커져” … 학부모 절반은 “불만족”. 뉴스원. 2020. 11. 18. <https://news.joins.com/article/23980537>
- 통계청(2020).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 풍천초등학교(2020). 2020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계획. 풍천초등학교.

## A B S T R A C T \*

#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Online Class Experience in COVID-19 Situation

Kim, So Yeon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This study aims to explore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with their online classes in Korea. To do this, literature studies and class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with 10 participant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In what context they run online classes, what they experienced through online classes, and what they mean to online classe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online class experience of homeroom teachers during the COVID-19 situ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oustakas(1994)'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online class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xt of the government's educational informationalization policy, changes in academic management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COVID-19, school-specific operations, and teachers' competence affected online classes. The government's educational informationalization policy has attempted various methods of classes using informationalization devices, and the degree to which the foundation is laid varies from school to school.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operation of the school's academic schedule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COVID-19.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school, and teacher-specific capabilities affected the operation of online classes.

Second,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had new experiences in the preparation stage of classes, class conditions, education about the students' life, and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experienced confusion while preparing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June, 2021.

for online classes, lacking classes and learning devices and having to decide autonomously without a manual. In class situations, the real-time two-way classes were attempted more and more, and various classes were tried. It was easy for students to guide their lives but difficult to provide a community experience. In addition, in online class situations, classes were often opened or contacted by parents compared to face-to-face classes.

Third,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tried to change from current classes through online classes, but fel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of online classes. Nevertheless, it was realized that a shift to posthumanism education was needed according to changes in society. In addition, training for teachers and infrastructure support such as devices and platforms are needed to operate online classes stably.

Based on the above, the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are the online class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in the COVID-19 situation. This could be a useful foundation for the practical operation of online classes.

**Key Words: Online Class, Remote Learning,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 Posthumanism, COVID-19**

<부록>

## 초등학교 담임교사 온라인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 참여 동의서

면담 일정 : 20 년 월 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원활한 온라인 수업 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3~6학년 담임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1.
2. 친구의 본 연구참여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3. 선생님께서는 언제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시며, 본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친구 인터뷰는 녹음되며 녹음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될 것입니다.
5.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논문에 인용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나는 연구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본 연구에 연구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참여자 : (서명)

연구자 김 소 연